

언약적 단일혼 동성 관계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가르치는가

이 연구는 언약적 단일혼 동성 관계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와 잇따른 토론을 간단히 요약한 것입니다.

연구의 요약

이 연구는 1994 년 총회에서 채택된, LGBT 의 교회 내 위치 및 역할에 관해 언급한 “성에 관한 성명”(Statement on Human Sexuality)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총회에 제출된 헌의에 응하여, 언약적 단일혼 동성 관계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검토합니다. (A&P 1994, p. 252-74) 우리의 연구에 근거할 때, 비록 1994 년 성명에는 많은 지혜가 있지만, 아래의 결론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간음, 강간, 근친상간, 혼음, 동성 관계를 하나님의 창조 패턴에 대한 성적 왜곡의 증거로 봅니다. (6.1.9)

“동성 관계”를 간음, 강간, 근친상간, 혼음과 함께 그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이성 관계이든 동성 관계이든 간음, 강간, 근친상간, 혼음을 할 때 성경은 그러한 행위를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 근거하면, 성경은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동성 관계에 대해 분명하고 명백하게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성경을 신중하게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면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는 LGBTQI 형제 자매를 정죄하는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이 연구는 “언약적 단일혼 동성 관계”(헌신된 이성 결혼 관계와 동일한 깊이와 신실함을 유지하는 동성 관계)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검토합니다. 이 연구는 성적 성향이 그 자체로 죄인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캐나다 장로교회(PCC)는 2003 년 총회에서 성적 성향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질문은, 어떤 것이 적절한 성도덕인가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언약적 단일혼 관계가 그리스도인 이성애자들의 기본적인 성에 관한 표준이라는 데 우리가 대체로 동의하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기준이 이성애자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공평하고 정당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1998 년 이후 캐나다 장로교는 “Living Faith(살아있는 믿음)”를 하나의 하위 규범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 우리가 지금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해 주는 제 5 장 “성경”을 신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어떤 성경 구절을 그 구절의 성경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과 삶, 말씀, 죽으심, 부활, 승천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성경의 증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읽는 것에 반대합니다(Living Faith 5.4). 성경은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면적인 증언을 제공하고 있기에 모든 해석은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라는 빛에 비추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 자체도 시(시편)와 서술(창 1-2)을 포함한 많은 장르를 가진 다면적인 문서라는 것을 압니다. 장르마다 고유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각 장르의 고유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은유가 많고 문학적 혹은 역사적 맥락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성서의 의미를 분별해 내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번역은 해석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서의 언어들과 그 언어들인 번역된 방식에도 자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지침을 따랐습니다.

1.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괄적인 “사랑의 계명”(마 22:37-4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첫 번째 계명은 신명기 6:8 을, 두 번째 계명은 레위기 19:18 을 인용하면서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2. 성경 자료가 발생했던 고대 이스라엘과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1 세기 팔레스틴 및 로마제국의 사회 체제와 가치가 현재 우리의 문화적 상황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신중하게 고려.

이 연구의 대부분은 성경 연구이지만, 우리는 이 연구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적절한 질문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과 의미와 목적에 대해 어떻게 가르칩니까? (섹션 1)

2. 사람의 본성과 의미와 목적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 이해가, 적절한 성관계란 어떤 것이라는 교회의 이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칩니까? (섹션 2)
3.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에 대해 성적 매력을 느끼고 동성과 성관계를 경험하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러한 성경적 도덕 논리를 어떻게 이해하며 언약적 단일혼 관계를 인정하기를 원합니까? (섹션 3)
4. 전통적으로 동성 성관계 금지와 관련되어 온 텍스트들은 교회 안에서 인간 및 적절한 성도덕에 대한 보다 넓은 성서적 가르침과 어떻게 연결되니까? (섹션 4)
5. 언약적 동성 단일혼 관계에 대한 우리의 결론이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행복을 가져입니까 아니면 해악을 가져옵니까? (섹션 5)

섹션 4는 다음과 같은 개별 텍스트들에 대한 연구입니다: 창세기 1-3 장(창조 이야기), 창세기 18-19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레위기 18:22 과 20:13 (“성결법” 언급), 로마서 1 장, 고린도전서 6:9, 디모데전서 1:10. 이러한 텍스트들을 주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난 이십 년 동안 이루어진 주석적, 문화적, 역사적, 언어적 연구를 광범위하게 읽었습니다. 참고문헌에 열거된 22 권의 책 중에서 삼분의 일이 안되는 일곱 권의 책만이 1994년 이전에 나왔고 따라서 1994년 성명의 저자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동성 성관계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극소수의 구절들은 언제나 강한 가부장적 편견, 배우자에 대한 부정,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해악, 성적 방종이라는 맥락 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랑의 계명”을 드러내는 동성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계명”을 드러내는 동성 관계는 파트너가 행복하도록 하는 행동을 하고, 서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책임을 지며, 정의롭고, 공평하며,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러한 관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특히 단일혼 관계인 파트너들의 언약적 헌신을 통해서 그러합니다.

연구

들어가는 말

교회 안에서 LGBT;인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캐나다장로교회의 가르침을 재검토하도록 총회에 제출된 요청에 반응하여, 이 연구는 언약적 동성 단일혼 관계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조사할 것입니다. 비록 그 요청은 많은 더 넓은 이슈들에 대한 지도를 요청하지만, 핵심적인 성경적 교리적 질문은 동성 성관계가 성경적으로 정당화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 내의 중요한 질문은, 적절한 성도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성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약적 단일혼 관계가 기초적인 성규범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합의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자신으로 이성애자로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 정당하고 공평한 질문입니다.

성적 성향 자체가 죄인가 하는 것은 이 연구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적 성향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캐나다장로교회 사회적 행동 핸드북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동성에 성향은 죄가 아닙니다. 과학적 증거는 성적 성향이란 타고나는 것이고, 삶의 이른 시기에 확립되며,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p. 39). 이것은 2003년 총회의 결정에 기초한 것입니다(A&P 2003, p. 526-47, 26, 34, 37-41, 43-45). 총회가 수락한 그 보고서는 성적 성향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진술합니다. 교단 차원에서 우리는 그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으며, 총회에 제출되고 교리위원회에 넘겨진 요청도 그 보고서의 그러한 입장에 대해 전혀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캐나다장로교회 내에서는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함축적으로 다른 형태의 성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자체로 죄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합니다.

성경은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모든 교리의 기준이 되며, 이를 통해 우리는 교회나 세상, 혹은 우리 안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행하는 모든 것을 성경의 판단에 종속시킵니다. 성경을 통해 교회는 왕이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매임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며 기록된 말씀은 그 분에 대해 증거합니다. (Living Faith 5.1)

제기된 질문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동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것이며, 또한 Living Faith 5 절 전체를 성서를 읽는 지침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에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라는 점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지침이라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할 것입니다:

- 프루프텍스팅(어떤 구절을 그 구절의 성경적 문화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과 말씀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가르침에 대한 성경의 보다 폭 넓은 증언을 주목하지 않은 채 텍스트를 읽지 않을 것입니다 (5.4).
- 우리는 성경이 4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다면적인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 자체가 시(시편)와 서사(창세기 1-2 장)를 포함하는 다양한 장르의 글이 담긴 다면적 텍스트라는 점을 인식할 것입니다. 장르마다 고유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각 장르의 고유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은유가 많고 문학적 혹은 역사적 맥락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성서의 의미를 분별해 내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 언어에도 자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존중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논의하는 텍스트의 원래 의도와 상관이 없는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그 텍스트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에 대한 성경의 증언에 비추어볼 때 해당 텍스트에서 그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Living Faith 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은 그 시대의 언어, 생각, 상황에 의해 조건지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합니다(5.4). Living Faith 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 안의 텍스트의 역사적 맥락과 더 넓은 성경적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성서 텍스트는 본래 여러 고대 언어들로 쓰여졌고, 이후에 다른 고대 언어들(라틴어 등)로 번역되었으며, 그 후에 (처음에는 고대의 원문을 참조하지 않은 채) 현대 언어들로 번역되었습니다. 모든 번역은 일종의 해석이고, 최근의 번역이 옛날 번역보다 꼭 원문에 더 충실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하위 기준(역주: Living Faith 를 가리킴)은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학문과 목상을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의 하위 기준은 성경을 신앙공동체 안에서 읽고 그 신앙공동체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고 가르칩니다. 지금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것은 동성애 관계에 대한 성경 연구를 교회 내의 LGBTQI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적이고 정당하며 공평한 방법으로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텍스트에 대한 논의는 신약의 복음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성에 대한 1994 년 총회 성명(이후 '1994 년 성명'으로 지칭)은 2.2.6 절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 논의합니다. 거기서, 기독교 윤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있음을 지적한 후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구약에 계시되고 양심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알려진(로마서 2:15) 도덕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구속력이 있는데, 이는 율법적 의미에서의 구속력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계시로서 구속력이 있습니다.

1994 년 성명의 이 절은 Living Faith 가 캐나다장로교회의 교리 하위 기준으로 채택된 1998 년 이전에 쓰여졌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1994 년 성명이 “성결법”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약간의 불확실성을 보이고, 나중에 “기독교 윤리에서 성결법의 사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1994 년 성명, 6.7)라고 언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Living Faith 는 특별히 5.4 절에서 캐나다장로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결법”과 같은 성경의 텍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 연구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랑의 계명”의 논리인데, 이는 어떤 바리새인이 시험하기 위해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36-40)하고 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계명에 대해서는 신명기 6:8 을 인용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레위기 19:18 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로써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 가르침,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돌봄,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는 이해가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되어 나타났으며,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 기록된 초대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압니다. 구약에 여러 종류의 율법이 있지만, 이 모든 율법을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 특별히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돌봄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십니다(Living Faith 5.1).

이 연구의 두 번째 지침은, 성경 자료가 발생한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조심스럽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Living Faith 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 취한 접근법은 구약의 성결법을 심각하게 여기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의 계명”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레위기 19:18 을 성결법의 핵심적 해석 원리로 인용하심으로써 레위기에 있는 성결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틀을 제공해 주십니다. 도덕적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성경 전체의 도덕적 틀과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면적 증언을 깊이 고려합니다. LGBTQI 자매들과 형제들을 포함하는 우리의 공동체에서 활동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준 최고의 사랑에 대한 증언 때문에 특별한 돌봄, 존중, 공평, 정의를 지향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1994 년 성명을 자주 인용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보고서는 그 성명에 담긴 지혜를 따를 것입니다.

1994 년 총회에서 채택된 동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20 차 총회는 인간의 성에 대한 전술한 성명을 채택하고, 그것을 당회, 교회회의, 노회에서 논의하며, 이 내용을 교회교리위원회의 지속적인 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이 성명을 1987 년의 22 번 요청과 1989 년의 9 번 요청에 대한 총회의 응답이 되게 합니다. (A&P 1994, p. 56)

이 보고서에 담긴 성경 연구는 1994 년 총회가 미리 내다본 이 과정의 일부로서 의도되었습니다. 일부 성경 연구는 1994 년 성명의 결론과 다른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히 설명될 것이며, Living Faith 5 절에 제시된 성경 해석 논리를 따를 것입니다.

이 연구의 핵심적인 고려 중 하나는 캐나다장로교회 안에서 동성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자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와 연결된 것은, LGBTQI 그리스도인들이 이성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처럼 언약적 관계를 시작하는 가능성입니다. 중요한 고려는, 성경 텍스트를 형성했던 문화적 맥락과 성경의 성도덕에 대한 접근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이해입니다. 1994 년에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문화적 상황적 편견과 복음 메시지를 분별하고 구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994 년 성명은 성경 자료의 가부장적 맥락은 우려와 분별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5.1.7 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21(“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에서 결혼 생활에서 상호복종을 옹호하지만, 그가 그렇게 말하는 맥락은 가부장적이고 위계질서가 있는 사회이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하게 거부합니다.

본 성경 연구는 이러한 통찰을 따를 것이며 성경 텍스트 안에 있는 가부장적 위계질서적 편견을 정당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별 및 성과 관련하여 잘 확립된 장로교의 해석 원리입니다.

성별에 대한 가부장적 위계질서적 편견이 동성 관계 문제에도 매우 깊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신약의 맥락과 당시의 로마제국에서는 동성 성관계를 남성다움에 대한 모욕으로 여기는 강한 성별 편견이 있었습니다. 1994 년 성명은 그러한 편견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이 성명의 6.11 절에서 유대인 학자 알렉산드리아의 필로(25-50)와 요세푸스(37-100)가 동성 관계를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강하게 거부한 것을 언급할 때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이러한 주장들을 위해 1994 년 이후에 이루어진 문화적 편견에 대한 연구를 접할 수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이제 동성 관계를 반대하는 4 세기 기독교의 편견의 근원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매우 끔찍한 여성 혐오에 바탕하여 그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필로는 “여자처럼” 행동하는 여자와 남자는 남자보다 열등하고, 그런 여자와 남자들은 여성의 “약점”인 욕욕 때문에 타락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여자와 “여자 같은” 남자는 인간의 저급한 면을 보여주는 반면에 남자는 영적인 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Lings 2013, p. 285 참조; 또한 Carden 2004, p. 61 in Lings, 그리고 Dynes 1990, p. 983). 필로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던 당시의 남성다움에 대한 그리스-로마 세계의 인식에 바탕하여 이 이론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그는 다른 남성의 “수동적인” 성 파트너로서 남자답지 못하게 행동함으로써 “남성다움을 더럽히는” 남자는 즉시 죽여야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그가 성취하고 싶었던 것은, 성과 관련된 유대교의 이러한 여성혐오적 견해가 로마 상류층 문화와 다르지 않으므로 유대교는 로마 상류층 문화와 잘 조화되는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로는 모세의 법은 로마 문화의 “본성의 법”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본성의 법”이란 로마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가리키는데, 필로가 동성 성관계는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 “본성의 법”에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텍스트를 읽을 때 문화적 맥락과 성별에 대한 편견에 대한 이런 새로운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1994 년 성명은 교회가 “동성애 혐오와 위선을 회개”하도록 촉구합니다. 교회가 그러한 회개를 했다면, 남성과 여성의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해 적용되었던 문화적 편견이라는 척도를 LGBTQI 자매들과 형제들과 관련하여 성경을 읽을 때에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성경을 읽을 때 개인적인 편견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의식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의 저자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편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컨대 언약적 동성 관계를 긍정하는 성경적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속상하게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지지하는 성경적 주장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LGBTQI 인들을 긍정하려는 경향이 있다면, 그런 편견 때문에 우리는 그에 반하는 주장들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기가 쉽습니다. 편견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런 편견을 의식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성령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경의 증언의 빛 아래에서 그 편견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편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강조하신 위대한 “사랑의 계명”에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 바탕하여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에 의지함에 바탕하여, 동성 성관계는 인간의 삶에 본래 자연적으로 들어가 있는 한 부분이라고, 그리고 동성애자들 사이의 언약적 성관계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긍정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본 연구의 저자들은 인정하면서 우리의 주장을 펴니다. 우리는 이 이해가 “사랑의 계명”을 반영한다고 믿으며, 또 캐나다장로교회 안에 있는 LGBTQI 그리스도인들을 사랑과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적절한 질문을 하기

성경 텍스트의 상황적 성격을 존중하는 성경 해석의 핵심적 측면 중 하나는, 해당 텍스트의 시대에 적절한 질문을 가지고 그 텍스트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성경이 인터넷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질문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겠지요. 인터넷은 성경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도 부적절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는 성적 성향으로서의 “동성애”라는 것은 성경의 세계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동성애”라는 단어 자체도 1890 년대에야 영어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비성경적인 가정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된 질문입니다. 예컨대, 그런 질문은 성경이 이것 아니면 저것 식의 대답을 제공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성경이 어떤 특정 형태의 성적 행동을 분명히 거부하지만 모든 형태의 동성 성관계를 꼭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와 복음 메시지의 빛 아래에서 성애에 대한 적절한 질문을 분별하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류와 창조세계의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음에 담긴 도덕적 가르침을 분별해 내려면 보다 기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떻게 가르칩니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통찰은 성 관습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다룰 질문은 인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1.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과 의미와 목적에 대해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는 위의 질문에 답을 한 후에, 다음 단계인 성경 연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질문은 다음이 될 것입니다.

2. 인간의 본성과 의미와 목적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 이해는, 어떤 것이 교회 내의 적절한 성행위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한 성경적 도덕 논리를 위한 건실한 성경적 바탕을 찾은 다음에는,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3.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애에 대해 성적 매력을 느끼고 동성과 성관계를 경험하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러한 성경적 도덕 논리를 어떻게 이해하며 언약적 단일혼 관계를 인정하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인 모임 안에서 동성 성관계에 대한 논의는 “동성 성관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여겨지는 특정 텍스트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접근은 캐나다장로교회 안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위 기준인 Living Faith 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그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증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성경 전체가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위에 제시된 폭넓은 질문들을 자세히 검토한 후에야, 사람들이 동성 관계를

성경이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텍스트들을 조심스럽게 살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면적인 증언이라는 렌즈를 통해 읽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속한 회중 가운데 언약적 동성 성관계를 갖고 있는 자매들과 형제들과 관련하여 물어야 할 적합한 질문은, 성경이 그런 관계를 분명하고 명백하게 금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다음 질문을 할 것입니다.

4. 동성 성관계에 대한 금지와 전통적으로 연관되어 온 텍스트들은 인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성경적 가르침과 기독교회 내의 적절한 성도덕과 어떻게 연관되니까, 그리고 그런 텍스트들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그리스도인의 언약적 동성 성관계를 금지합니까?

위의 모든 질문에 답한 후에, 성경은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적이 되라고 가르치는데 특히 서로의 행동에 대해 판단을 하려고 할 때는 책임적이 되라고 합니다. 성경에 깊이 뿌리내린 상호책임성은, 우리가 믿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해악을 끼치는지 혹은 우리가 믿거나 가르치는 것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서로에게 해악을 끼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는지 묻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는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결론이 어떤 범위로 해악이나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지 물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우리의 결론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5. 언약적 동성 단일혼 관계에 대한 우리의 결론이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행복을 가져오니까, 아니면 해악을 가져오니까?

이 질문을 다루는 동안, 본 성경 연구는 4 세기 이래로 “소돔의 죄”라는 죄목 아래 모든 형태의 동성 성관계를 거부해 온 오랜 기독교 전통을 간략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가르침의 궤적이 어떻게 성경적 증언에서 이탈하였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해악을 가져왔는지를 잠깐 다룰 것입니다.

성경 연구

1.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과 의미와 목적에 대해 어떻게 가르칩니까?

1. 신약은 위의 질문들에 담긴 중요한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책이 아니라, 특정한 맥락 속에서 목회적 필요에 응답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 중 하나는 사도 바울ⁱⁱⁱ이 쓴 초대교회의 초기 문서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복음서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속에 근본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게 바울이 쓴 목회적 저술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언급할 때는 예외 없이 초대 기독교회들의 목회적 어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합니다. 초기의 성경적 가르침이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신학적 혹은 윤리적 결론도 목회적, 인간적, 문화적 배경과 분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의미와 목적에 대해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구속이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자유롭게 되도록 예정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바울의 로마서 서론 부분에 나타나는 큰 주제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로마서 3:23)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은 복음의 위대한 구속 메시지의 서곡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5 장과 6 장은 믿음을 통한 은혜의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온전함을 가져다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에게 속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의 삶에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과 영혼이
사나 죽으나
오직 내 구주 예수 그리스께 속했습니다.

이 선언의 직접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은 로마서 14:7-8 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맥락에서, 이 통찰은 그리스도인의 관행들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는 목회적 우려를 다루기 위해 사용됩니다. 바울로서는, 이러한 다름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와 분리해서 다루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삶, 사역, 죽음,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고 속박과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그의 사랑과 은혜의 용서와 용납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그에게 매달릴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바울의 로마서에 대한 이 폭넓은 통찰은, 동성 관계에 대한 분명한 거부라면서 종종 인용되는 로마서 1 장을 나중에 살펴볼 때 특히 중요해 집니다. 거기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 모두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수사적 주장을 사용합니다.

Living Faith 가 상기시키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의 삶에 존재하는 힘”(2.5.4)인 죄 때문에 우리는 구속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 장은 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교회 역사 내내, 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각들 중 다수가 창세기 3 장에서 죄가 어떻게 아담과 이브의 삶을 사로잡았는지를 해석하는 데 여전히 도움이 됩니다. 개혁전통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나타나는 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계명”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데서 드러납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마태복음 19:19, 22:37-40, 마가복음 12:31-33, 누가복음 10:27, 로마서 13:9, 갈라디아서 5:14, 야고보서 2:8, 요한복음 13:34).^{iv}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삶에서 실천하셨고, 우리가 누구이며 그의 구속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점을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보다 넓게 보시는데, 병, 귀신에게 사로잡힘, 해악, 고통, 억압을 불러일으키는 악으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은 악과 죄의 효력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구속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사복음서를 공부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행동을 증언하는 훨씬 더 많은 자료를 발견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가 가르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교회는 지금까지 영혼의 구원과 개인적인 죄 용서를 구원의 핵심 요소로 강조한 적이 많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은 죄의 힘과 의미를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모든 종류의 악에 도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사회 주변부에 있는 이들을 일으키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을 다루는 예수님의 풍부한 가르침과 모범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치유와 섬김과 해방을 통해 구속을 일으키시므로써 가장 약한 사람들(예컨대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의 몸을 가진 사람들)의 구주이십니다. 복음서의 시작 부분(누가복음 1:52-53)에서부터, 짓밟힌 자들을 향한 기쁜 소식과 그들을 억압하는 힘센 자들을 향한 정죄가 마리아의 노래에서 선포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누가복음 4:18-19(구약 이사야의 그리스어 번역본에서 인용)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는 가난하고 힘 없고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야기들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누가복음 19:1-31)를 통해 이 주제를 증언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고통을, 우리를 구속하고 자유케하는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캐나다장로교회 안에 있는 LGBTQI 인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그 이전까지는 부정하고 가치없고 혐오스럽게 여겨져 배척받던 사람들에게 대한 배척을 예수님께서 도전하는 모습을 복음서들이 계속적으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v 데이비드 보쉬와 같은

학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보다 급이 낮은 신자로 여기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을 어려워하던 초대 기독교 공동체 내의 목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태복음이 쓰여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두 가지 생각 모두를 창조적 긴장 가운데 붙들고 있다가 지상명령에서 교회를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Bosch 1991, p. 82)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오래된 편견들을 과격하게 뒤집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 장에 보면 처음에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거절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8 절에 가면 예수님은 그녀를 참된 믿음의 모범으로 선언하십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돌보셨다는 증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후의 심판 이야기(마태복음 25:31-46)에서, 예수님은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을 만나고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결론은 다시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40)

이 간단한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동료 인간들의 존엄성을 인식하는 것과 그들의 필요와 고통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의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율법서와 선지서(따라서 성경 전체)가 “사랑의 계명”(마태복음 22:37-40)에 달려있다는 예수님의 강조점을 드러내 줍니다. 최후의 심판 이야기는 이웃, 특히 주변부로 밀려나고 고통을 당하는 이웃(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LGBTQI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본 연구의 주제는 의미가 매우 큼니다. 그 의미는,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도덕적 지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도덕 논리를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인데, 그 논리는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논리입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은 이 계명의 빛 아래에서 자세히 검토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창세기 1:27 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기 위해 우리는 이 통찰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며 예수님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 예수님의 구속의 초점은 악, 고통, 개인적 죄와 같이 그 폭이 넓으며, 특별히 우리 사회와 문화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자들(가난하고, 주변부로 밀려났고, 제외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 현재에서 시작되어 앞으로 계속되는 완전하고 의미있는 구속을 가져오는 예수님의 사역의 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예수님은 인간을 존엄성과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1.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구분되는 사람간의 계층이 없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의미에 대한 이 통찰을 우리는 목회적 이슈를 다루려는 바울의 시도에서 다시 한 번 발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규칙이나 법을 부과하려는 사람들과 관련된 목회적 문제를 다룹니다. 이 주장을 하는 동안,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로써 교회 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등하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27- 28)

여기서 바울의 의도는 분명히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세례받은 구성원들의 본성, 의미, 목적에 대해 일반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말들은 모두 포용적인 말들이며, 우리의 정체성이나 성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여겨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나아가 이 새로운 하나됨의 함의를 그리스도인들의 엄청난 자유라는 측면에서 논합니다(갈라디아서 5:1). 이 자유는, 우리의 자유이시고 우리를 평등하게 하시는 분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인간이 만든 노예제도나 심지어 성별과 같은 경계를 넘어서십니다. 갈라디아서 3:27-28 의 주장은, 그것이 성별과 바울 시대의 문화적 스테레오타입에 도전하는 방식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노예”라는 범주 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하셨던 상당한 수의 고자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또한 예수님께서 성적 상보성을 수정하여 다른 성별 범주들도 포함시키신다는 성경적 통찰을 확립한다는 것을 나중에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만이 제기한 주장이 아닙니다. 복음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시대의 스테레오타입들에 일관되게 도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초대 교회가 기억하고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예는,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 가르치신 것, 그리고 1 세기 팔레스타인에 나타난 다른 성별 현상을 고려한 남성과 여성의 방향 재설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3 예수 그리스도는 성별간 차이의 의미를 재정의하십니다

마태가 마태복음 19 장에서 고자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을 이혼과 결혼에 대한 논의 바로 뒤에 배치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마태가 이 이야기의 출처로 삼았을 가능성이 큰 마가복음 10:2-12 도 참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복음서는 초대 기독교 내에 발생한 여러가지의 다양성 이슈들을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이러한 이슈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서의 정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복음서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점점 고조되어, 가르치고 세례를 주기 위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마지막 장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이러한 결론은, 그리스도인들(자기들의 정체성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준다고 생각했던)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사랑과 은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기 위해 예수님은 교회를 파송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 복음서는 성별에 대한 편견에 도전합니다. 마태복음 15 장에서 가나안 여자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9 장에서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 언급하시는데, 우리는 그 당시의 문화적 관습과 편견에 비추어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강조점은 단순히 성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당시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정의(justice)입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여성과 남성은 평등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시험하기 위해 하는 질문에 대답하고 계신데, 이번에는 이혼 관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이혼 관습 때문에 힘 없는 여성들은 버림을 받아 굶주림과 기본적인 것조차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반면에, 남성들은 자신의 모든 자산과 힘을 그대로 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Nolland 2005, p. 774-775)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부분은, 결혼 관계에서 남성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남성들이 마음 내키면 자기 아내를 그냥 내버릴 수 있다고 느끼는 특권 의식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법으로는, 남성은 혼외 성관계를 가지더라도 간음을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Keufler 2001, p. 82)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서로에 대한 책임성과 성적 결합에서의 서로에 대한 책임성이라는 성경적 가르침을 강조하십니다(마태복음 19:6-9). 예수님은 당시의 법에 의해 주어진 가부장적 특권을 통해 여성을 착취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 장의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 이야기에, 그 여자와 함께 간음하다 붙잡힌 남자는 등장하지 않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남성 고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도전 속에, 성별간에 가부장적 불균형이 있던 당시 세계에서 정당하고 공평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시 한 번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텍스트가 명령하는 바가 관계에서의 정의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1960 년대에 장로교인들은 캐나다 정부에게 이혼 법을 보다 정의롭게 개정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A&P 1964, p. 350-51, 357; 그 총회에 제시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주석 24 장도 참조).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담긴 정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혼 문제에서 균형과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성적 성향에 대한 논의들은 흔히 이 텍스트를, 예수님께서 오직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별만 인정하셨고 그것을 규범으로 승격시켰다는 생각에 대한 성경적 밀반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텍스트는 성별 규범이 아니라 주로 결혼 관계 안에서의 책임성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한 이 논의 바로 뒤에 로마 시대에는 애매한 성별 범주였던 고자에 대한 논의로 곧장 나아가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큼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에는 세 가지 종류의 고자가 흔했습니다. 이 텍스트를 The American Standard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옮겼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자신을 고자로 만든 사람들도 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게 하라. ^{vi} (마태복음 19:12)

우리는 이것을 고자에 대한 로마의 일반적인 이해를 기술한 로마 법학자 율피안(170-223)의 설명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세 종류를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성기를 절단당한 사람들, 그리고 불임으로 만들어진 사람들로 기술합니다. (Keufler 2001, p. 33) 이 성서 텍스트의 함의를 이해하려면 당시 문화에서 고자는 열등하고 수치스럽게 여겨졌다는 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의 법적 지위는 불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성행위를 할 수는 있었지만, 매우 가부장적인 명예-수치 법 시스템에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남자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Keufler 2001, p.

33) 또한 노예 고자들은 종종 남자 주인과 여자 주인에 의해 성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Keufler 2001, p. 98-100) 대부분의 고자들은 종종 십대 초반에 성기가 훼손된 노예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남자와 유대인 남자들은, 공격적인 남성성으로 자신의 남자다움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경멸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의 남성성을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남자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고자들은 오늘날의 LGBTQI 인들이 자주 취급받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욕설과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묘사하신 고자의 범주는 애매하거나 잘 발달되지 않은 생식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 중 일부는 두 종류 혹은 애매한 성기를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간성(intersex)인이라고 부릅니다. 메간 드프란자(Megan DeFranza)에 의하면 0.02%에서 1.7%의 사람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합니다. (2015, p. 44) Keufler 는 “고자의 신체는 그 사람의 애매한 성별을 가시적이고 물리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2001, p. 34)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성적 성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고자와 그들의 지위에 대한 예수님의 논의는 성별 모호성에 대한 가장 근접한 성경의 언급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언급과 관련하여, 이 텍스트 자체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자의 범주에 포함시켰다고 실제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만, 기독교 전통은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결혼하지 않은 채 남아계셨고 따라서 천국을 위해 스스로 자신을 고자로 만든 사람 중 하나로 생각해 왔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마태복음 19:12 에 묘사된 그런 행동은 문자적으로 스스로를 거세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의 후기로 가면 실제로 일부 남자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실행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몸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관행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을 하셨는지 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결코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다. 급진적 유대교 종파인 에세네파(기원전 200 년에서 기원 1 세기)에서 금욕을 강조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학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이 운동과 관련짓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런 이론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Hill 1978, p. 279-282 참조).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뒤에 나오는 세 가지 고자에 대한 이 흥미로운 구절을 살펴볼 때, 우리는 언약적 결혼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윤리적 탁월성 면에서 문화적 규범을 뛰어넘는 정의로운 책임성이라는 수준을 기대하신다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해되던 바의 욕을 먹던 고자라는 애매한 성별 범주를 소개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틀로 정립했다고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태복음에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결혼과 고자)의 병치를 통해, 일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규정하는 것은 성기와 성별에 대한 문화적 가정이 아니라 관계에서의 책임성이라고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바울 서신들을 통해 예수님은 새로운 인간(고린도전서 15:22)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성별이나 성적 지향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다 포용하신다는 확신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남성들, 여성들, 그리고 그 외 사람들(고자들)을 포함하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 새로운 인간이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27-28 은 예수님의 새로운 통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그것은 새로운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에 기초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그 텍스트에 있는 중(노예)이라고 하는 범주에는 당시의 많은 고자 노예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우리가 남성이나 여성이라고 하는 성별 도식에 정확하게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슬프게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평등한 지위에 대해 신약의 모든 책들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결론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장로교 전통에서는, 가부장적이고 문화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들을 포함하고 있는 신약의 어떤 부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지식과 모순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 덕분에 우리는 노예 해방은 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그리고 여성은 남성과 완전히 동등하다고 여기고 대우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Living Faith 가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계시라는 빛 아래에서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5.4) 그러므로 결혼과 고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별 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양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종류의 성적인 평등 및 성별 평등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도록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시던 세계에서 성별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별이 애매한 상태로 태어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성별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인식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넓은 사랑은 성령의 인도 아래 LGBTQI 인들에 대한 편견을 재검토하도록 우리를 도전할 것입니다.

1.4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기원을 창세기의 이야기로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장로교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의 큰 틀은,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야기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거만은 다음과 같이 창세기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고 요약합니다.

“사실만 고려하면 죽음이 마땅한데도,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들의 생명을 고집하십니다.” (1982, p. 50)

창세기의 최종 형태가 언제 완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의견이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것과 같이 완전히 문서화되고 편집된 형태가 하나님의 백성이 바빌론에 유배를 간 시점까지는 완전히 확립되었다는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습니다. (Breuggemann 1982) 브루거만은 창세기가 약속이라는 보다 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유배지에 있던 백성들에게는 더 할 나위 없이 용기를 주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이 세상과 인류를 하나님이 구속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가르침의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창세기의 처음 몇 장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텍스트들을 읽을 때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려면, 이러한 텍스트들이 시와 시적 이야기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은유를 문자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하고 은유를 사실로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과제는 시와 은유에 담긴 깊은 의미를 살피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이러한 텍스트들의 문학적 성격이 그 텍스트들을 해석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창세기 1 장에서 3 장을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 대한 문자적 혹은 과학적 기록으로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시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세계에 대해 가지는 관계와 의도와 사랑에 대한 찬송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텍스트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와 그 사명을 밝혀준다고 이해합니다. 테렌스 프레사임(Terrence Fretheim)의 자세한 책인 *God and World in the Old Testament*(2005, p. 30-48)은 창세기 1 장과 2 장의 형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장로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그러한 구절들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창세기는 어떤 것을 가르쳐줍니까? 위에서 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나오듯이, 이러한 텍스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배웁니다. 인간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1:27-28 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저술이 나왔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텍스트들을 창세기 2 장에 나오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와 결합하여, 인간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두 성별의 상보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9 장에 나오는 이혼과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해를 확증하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태복음 19 장의 텍스트 자체는,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성별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자연적인 관계를 긍정하시지만 그는 성별 범주들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로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고대의 성경 텍스트가 매우 가부장적인 사회(위의 내용 참조)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1994 년 성명의 5.1.7 도 우리가 이러한 성경 텍스트를 읽을 때 가부장제도의 영향을 거부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합니다. 여성 신학자들은 이러한 텍스트들을 남성 혹은 여성에 포커스를 맞추어 읽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여성혐오적인 관행에 빠지도록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Gonzales 2007) 구약학자 테렌스 프레사임은, 창세기 1 장과 2 장이 과거에 매우 해로운 방식으로 읽혀져왔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어떤 규범을 만들려고 할 때 특히 해로왔다고 지적합니다. (2005, p. 30) 예를 들어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나 여자가 없고 오직 하나일 뿐이라는 신약의 결론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전을 하신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 덕분에 성별간의 불평등이 일소되어야 한다고 기꺼이 인정한다면, 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성별 및 성적 다양성이라는 현실에 대해서는 동일한 논리를 무시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27 은 매우 중요하게 고찰해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이 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어구의 의미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해석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시적 언어로 말할 때에 그 의미가 얼마나 넓은지를 증명하는 것이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vii 동시에, 그러한 신학적 아이디어 중 어떤 것을 규범으로 만드는 것은 텍스트의 의도와 의미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인으로서 그 문구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는 하나님 형상의 성육신입니다. 그는 인간의 형상을 한 하나님입니다. 그는 사람을 존중하여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서로 깊이 사랑하며 깊이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미와 관련하여 창세기 1 장과 2 장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바와 같은 관계 속의 사랑과 책임성이 바로 하나님 형상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1 장과 2 장의 이야기와 하나님 형상의 의미를 드러내시는 중요한 방식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과 관계 속에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27-28 절에서 인간(단수)에서 인간 공동체(남성과 여성)로 옮겨가는 것, 그리고 창세기 2 장에서 아담(하나)에서 이브와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서의 아담의 형성으로 옮겨가는 것은, 둘 다 인간은 자기충족적인 개인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를 관계 속에 있는 존재로 규정합니다. 인류를 향한 그리고 인류와 함께 하는 치유적 사랑과 자기를 내어주는 관계를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은 관계의 의미를 밝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정도만큼, 인간은 인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인데, 이는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see Fretheim 2005, p. 32)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창세기 1:28)은 창세기 2:15 에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 지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창조세계의 번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Fretheim 2005, p. 53) 서로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책임성은 “사랑의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장로교회의 관행과 가르침에서 우리는 “생육” 혹은 “출산 능력”을 생물학적 규율 수준으로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커플들에게 성행위를 금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산 연령이 지난 사람들 간의 결혼을 우리는 기꺼이 축하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육을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서 많은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조부모, 멘토링을 해 줄 수 있는 분들, 양부모, 또한 번성하는 공동체를 위해 사랑과 성장의 관계들을 맺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 분들로 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창세기 1 장과 2 장에 있는 성경적 가르침을 신학적 규칙을 확장해서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책으로 여기지 않고, 대신 우리의 일상 생활을 위한 은유적 영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창세기 1 장과 2 장에 담긴 인간의 생육에 대한 아름다운 은유적 가르침을, 성적 표현에 있어서 생물학적 성별 상보성이라는 규범으로 만들어 성별이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규범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매우 일관성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왜 성별의 변이가 존재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릅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변이가 동물들과 사람들 모두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압니다. 과학연구에 의하면 여기에는 생물학적 이유가 어느 정도 작용하고 또 수많은 다른 요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별 스펙트럼에서 대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성적 성향은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고 지속적이고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예수님은 창조 세계에서 성별 변이는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이 명백합니다.

1.5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에서 관계적 도덕 논리를 보여주십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36-40)

사람됨의 의미가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간에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에 대한 성경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짐으로써 사람됨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됨이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드러납니다. 율법의 모든 가르침과 기독교의 모든 도덕적 통찰은 “사랑의 계명”의 논리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서와 선지서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마태복음 22:40).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에 비추어 사람됨이 무엇인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나머지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에 비추어 우리 인간들의 시스템, 구조, 제도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선교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탐색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소명의 이러한 선교적 차원은 교회교리위원회의 보고서 “오늘날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의 삶(Living in God’s Mission Today)”에서 탐색되었습니다. 이 성경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제 위의 논의를 요약하고 인간의 성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을 가르칩니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고, 죄와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 계급, 지위, 인종, 성별 변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합니다.
- 예수님은 고자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극단적으로 단순한 남녀 상보성을 넘어서는 성별 변이를 인식하고 분별하십니다.
-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인 우리는 관계적인 피조물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간에 사랑의 관계를 이루도록 예정되었습니다.
-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 율법서와 선지서인 “사랑의 계명”에 요약된 바와 같이, 우리는 상호 존중과 사랑의 도덕 논리를 지키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2. 사람의 본성과 의미와 목적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 이해가, 적절한 성관계란 어떤 것이라는 교회의 이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칩니까?

위의 논의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 세 가지를 분명하게 해 줍니다. 첫째, 인간 관계는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존중, 양육의 모습을 띄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기꺼이 가신 것에서 나타나는 바 자신을 내어주는 태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매우 깊은 공정함과 정의의 관계를 맺도록 요구합니다. 셋째, “모든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힘”으로 남아있는 죄 때문에(Living Faith 2.5.4) 우리는 평생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결혼 관습이 역사에 나타났지만, 신약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상황으로서 언약적 단일혼 관계를 강하게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언약에 대해 결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19 장에 나타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가르침의 문화적 의미를 논의했습니다. 이 경우 결혼에 대한 이해의 핵심은,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남자들이 이혼을 통해 여자들을 착취하는 상황에서 여자들의 취약성에 대한 예수님의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조합니다. 거기에 더해 “사랑의 계명”의 시각에서 결혼을 보면, 그러한 언약적 관계에 추가적인 차원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결혼 파트너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 성관계는 결혼 언약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이 매우 분명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 지도자 그룹 중에서 단일혼을 이루고 있는 좋은 예에 대해서 말할 뿐입니다(예컨대, 디모데전서 3:2 과 12 절). 단일혼에 대한 이러한 지침에는 다른 요소들도 작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의 문화 구조에서 결혼 제도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1 세기 팔레스타인에서 결혼은 오늘날의 결혼과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문화적 한도와 기대는 우리 시대와는 매우 달랐고, 당시의 결혼 관계에서 여자와 남자가 불평등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시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부도덕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관계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동시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의 결혼 관습이 보다 평등한 쪽으로 천천히 개혁되어 나가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에베소서 5:22-25 이 가부장적 지배라는 당시의 문화적 편견을 반영하고 있고 그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있지만,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가부장적이고 지배적인 남편이 사랑으로 자신을 그 아내에게 완전히 내어주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얼핏 보면 에베소서에서 여성의 복종 지침이 가부장적 권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남성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자기를 내어주어야 하는 방향으로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명령(갈라디아서 3:27-8), 그리고 그 명령이 뿌리를 두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들과 성별간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데는 시간이 걸린 것이 분명합니다.

결혼에 대한 성경의 또 다른 시각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평행적 은유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은유적 관계로 보는 것은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의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의 물활론적 종교에 둘러싸이게 되었는데, 그 핵심은 바알신 숭배였습니다. 바알은 그의 자매 아세라와의 성적 결합을 통해 땅을 비옥하게 할 수 있었고, 바알 숭배자들은 자기들도 그 마법을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 즉 신전에서 성행위를 통해, 땅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멜은 성전의 창기가 되기 위해 호세야를 떠났고, 나중에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고멜을 거부하지 않고 호세야는 그녀를 노예신분에서 건져내어 다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성전 창기제도에 대해 곰곰히 생각하다가 호세야는 자신이 고멜에게 배신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알과 땅의 결혼이라는 이미지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신의를 저버린 백성이요, 고멜이 호세야를 버리고 창녀 노릇을 한 것처럼 창녀 노릇을 한 백성)의 남편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성립된 언약적 관계를 호세야는 결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파기했고 결혼 서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짓 신들을 좇아 음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언의 마지막 장인 화해의 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자유롭게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호세아 14:4)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예언자 에스겔은 이 이미지를 에스겔 16:8-15 에서 명시적으로 사용합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특히 16:25-27 에서 성적인 용어로 표현된 죄 때문인 것으로 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16:35-43 에서 아내에게 배신당한 화난 남편의 말로 말해집니다. 호세야는 이 풍자를 사용하는 것의 좋은 점과 그것이 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둘 다를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매우 성적인 언어로 이스라엘을 정죄하기 위해 이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은유적 관계는 매우 익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25-33 은 이 이미지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결혼에 문자적으로 적용하며, 또한 결혼에서 여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다는 로마의 가부장적 사고를 확증하는 데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창세기 2:24 을 은유적으로 읽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즉, 이 결합을 꼭 다른 성별 간의 결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33)

당시의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 때문에 이 텍스트에는 여전히 사랑과 존경이라는 성별 간 불균형이 담겨 있고, 남녀로부터 각각 다른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의 빛 아래에서 읽는다면, 우리는 이 텍스트를 평등을 지향하여 읽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 시대의 문화적 변화에만 기초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증언에 기초한 것입니다. 장로교인으로서 우리는 교회 지도력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이미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의 계명”과 성경이 증언하는 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의 논리는, 우리로 하여금 노예를 해방하고 여성을 정의롭고 평등하게 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성관계의 도덕적 논리란 무엇일까요? 위의 텍스트는 이상적인 형태의 결혼이란,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 이미지 때문에 파트너에 대한 서로 간의 존중에 깊이 뿌리를 둔, 상호 간의 사랑과 아낌이 있는 언약적 단일혼으로 표현된다고 우리가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실은, 에베소서의 구절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데, 이는 그 구절이 파트너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도록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상대방 앞에서 진실된 “별거벗음”과 정직성이라는 어느 정도의 취약성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이런 수준의 상호 존중, 취약성, 자기를 내어줌에 이르면 그런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은유, 나아가 설교가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관계의 이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성령의 열매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결혼 언약은 취약성과 서로를 조심스럽게 아끼는 가운데 이러한 열매를 더욱 더 깊이 영글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친밀 관계의 모범은 세상과 기독교 공동체에 영감을 줍니다.

성 관계는 또한 욕망과 성취를 표현합니다. 나중에 기독교 전통은 성적 욕망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많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후반에 성관계를 즐기는 것을 거부하게 된 것은 흥미롭고 탐구해볼 만한 주제이지만 그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납니다.ⁱⁱⁱⁱ 성경은 성관계에 대해 그저 사실대로 다룹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9 에서 성적 욕망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다룹니다. “정욕이 불 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그의 조언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공동체 안의 언약적 성관계는,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욕망이 불 같이 타서” 극단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성적 욕망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착취하고 이용할 가능성이 생기고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범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사회적 규범을 범하여 기독교 공동체에 추문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 장에 있는 바울의 지침의 함의는, 욕망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착취와 문란으로 우리를 잘못 이끄는 것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랑의 장소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존중이 있는 언약적 관계가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사랑이 있으며 책임적이고 헌신된 성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성적 착취에 취약한 사람들이 직면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고 동성과 성관계를 경험하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러한 성경적 도덕 논리를 어떻게 이해하며 언약적 단일혼 관계를 인정하기를 원합니까?

결혼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에는 동성 성관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당시 로마 문화에 동성 결혼 언약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콘스탄스 황제가 동성 결합을 금지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Johansson 1990, p. 683)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주로 성경에 기초한 것은 아니고 로마 문화에서 남성의 역할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 법은 동성 파트너 사이의 어떤 종류의 성적 결합 혹은 결혼 언약을 금지했는데, 그 근거는 한 파트너가 “저급한” 여성의 역할을 “남자답지 않게” 수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를 공식화하는 예식들을 설명하는 역사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대한 주요 학자인 매튜 쿠플러(Matthew Keufler)는, 그런 예식은 아마도 드물었고 로마인 남성과 고자 사이에 거행되었다고 믿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로마시대의 고자와 남자 사이의 결혼의 예를 인용합니다. (2001, p. 100-102)^{ix} 4 세기경에 이르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동성 성관계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소스토미 안디옥에 재직하는 동안 그런 관계에 맹렬하게 반대하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Crompton 2003, p. 141-142) 그 후에 유스티니안 황제는 동성반대법을 더욱 과격하게 만들어서, 동성 관계에 있던 많은 주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Crompton 2003, p. 143-144) 동성 관계와 관련하여 신약을 읽을 때 우리는 다음 사실을 꼭 이해해야만 합니다. 즉, 지금은 과학과 경험에 비추어 사람들의 삶에 현실이라고 교회가 인식하는 성적 성향이라는 개념이 신약 시대에는 알려진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동성 성관계를 가졌고 일부 그리스도인들(특히 3 세기와 나중에 4 세기 알렉산드리아 학파)은 그런 관계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3 세기에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행위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성교를 반대하는 전통이 형성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통의 형성은 성경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고 극심한 금욕을 강조하는 수도원 운동의 출현에 뿌리를 둔 것이었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런 관계는 “열정” 없이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이런 견해에서 성행위란 서로를 하나되게 하는 아낌이나 그 자체의 즐거움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견해는 명백히 비성경적입니다. 성적 표현에 대한 이런 관념이 중세 교회 수도원 전통의 일부가 되었으나, 종교개혁자들과 우리의 개혁/장로교 전통은 이것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관계를 맺고 있는 LGBTIQI 인들을 고려할 때 언약, 단일혼, 사랑에 관한 논리가 성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분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그런 자매들과 형제들에 대한 우리의 분별에 예수님의 가르침, 모범, “사랑의 계명”이 어떻게 조명해 주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처럼 성경에는 신실한 친밀 관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사무엘상 18:1-4 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겔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째,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다정한 사랑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요나단의 아버지에 대한 충성을 넘어서는 언약적 관계이며, 상징적 물건의 교환으로 언약에 인침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을 때, 요나단은 이 깊은 사랑의 관계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종이 관계를 폭로하지 않도록 그를 돌려보낸 후에, 사무엘상 20:41-42 은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바위 남쪽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세 번 절하였다. 두 남자는 서로 입을 맞추었고 둘 다 울었는데 다윗이 더욱 많이 울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우리 두

사람이 모두 ‘여호와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그리고 나의 후손과 자네의 후손 사이에 영원히 계시기를’ 하고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므로, 평안히 가게.” 하였다. 그러자 다윗은 일어나서 떠났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갔다. (역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한국어 번역에서 성경인용은 모두 개역개정판을 사용하였으나, 여기서는 영어 문서에 사용된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 의 내용과 개역개정판의 내용이 상당히 다르므로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 에서 직접 번역함)

관계의 이 단계에서 성경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위로하기 위해 친밀하게 육체적으로 품에 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x 이별이 올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은 앞으로 다가 올 어려운 시간을 예상하며 읊니다. 비록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시대에 그런 관계의 문화적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지만, 육체적 정서적 위로와 언약이 관계되는 깊은 동성 성관계가 여기 보인다는 것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이야기의 다양한 문화적 차원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다윗의 왕위를 정당화하고 통치권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것을 정당화하는 신학적 정치적 의미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agnon, 2001, p. 147-148 그리고 Heacock 2011:8-14) 어쩌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는 고대의 “형제 맺기” 관념이라는 차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성행위의 가장 친밀한 형태들을 언급하거나 암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에는 평등한 동성에 요소가 뚜렷하게 들어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주장해 왔습니다. (Nissinen 1998, p. 55 ff. 그리고 Jennings 2005, p. 34-35) 제닝스(Jennings)는 나이가 더 많은 요나단과 상대적으로 젊은 다윗 사이에 힘 관계가 역전되었다는 장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바와 같은 헌신된 동성 관계 비슷한 것을 기대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Jennings 2005, p. 5) 이 이야기는 적어도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성경의 예를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관계가 두 남자 사이의 인간 관계와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랑의 계명”이 요구하는 대로 반영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성경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품에 안고 붙들고 입을 맞추는 행위가 포함된, 두 남자 사이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깊은 동성 관계의 이야기는 나오미와 룿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안소니 스피나(Anthony Spina)의 책에 수록된 바, 이 책에는 구약과 신약에서 아웃사이더를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모아놓았습니다. (2005; see also Lings 2013, p. 616 ff)

구약학자 레나토 링즈(Renato K. Lings)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전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이야기에는, 모압 여자 룿이 베들레헴 출신의 이스라엘 여자 나오미에게 한 충절과 평생에 걸친 헌신에 대한 열정적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Lings 2013, p. 617)

링즈에 의하면, 이 이야기는 동성 관계에 대한 성경적 시각에 대한 논의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 책의 앞부분에는 창세기 2:24 과 룿기 1:14 사이의 중요한 병행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 은 룿기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 그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어 작별을 고했으나 룿은 그녀를 붙쫓았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그녀를 붙쫓았다”에 해당하는 어구는 *dovqah bah* 로서, 이것은 창세기 2:24 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역주: cling to his wife, 그 아내를 붙쫓아)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에 병행하는 어구입니다. 창세기 2:24 에 있는 “합하여”는 *davaq beishto* 입니다. (Lings 2013, p. 618) 링(Ling)은 룿이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언급합니다. 이 동일한 히브리어 표현의 병행 사용은 개혁전통의 학자 제임스 브라운슨(James Brownson)이 주장하는 것처럼 창세기 2:24 은 성별의 상보성 선언이 아니라 친족의 연분을 맺는 것에 대한 히브리어 표현으로 읽어야 한다는 강력한 뒷받침입니다. 이 경우 연분은 두 여자 사이에 맺어집니다. (Brownson, 2013, p. 109) 이 이야기는 룿의 아름답고 충직한 언약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서 나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어머니와 나 사이에 들어온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룿기 1:16-17)

모압인으로서 외부인이었던 룯이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일부가 되는 룯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확대가족 안에 있는 남성만이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들의 취약한 처지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이 주제는 가부장적인 이혼 관습과 관련된 여자들의 취약성에 대한 예수님의 우려에서도 똑같이 재등장합니다. 룯과 나오미의 이야기는 두 여인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문화, 인종, 성별에 걸친 문화적 타부를 깨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인종과 성이라는 편견의 경계를 넘어 표현된 용기와 헌신과 충절과 평등은, 결혼에 대해 신앙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 두 여인에게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존중 모두에서 “사랑의 계명”을 매우 잘 반영하는 사랑을 발견합니다. 룯기 연구에서 셀레나 던칸(Celena Duncan)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룯과 나오미는 결혼으로 맺어진 가까운 가족이었을까요, 친구였을까요, 아니면 성적인 파트너였을까요? 그들의 관계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들이 한 것을 제한하고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한 링의 긴 논의 끝에 언급된 던칸(Duncan)의 말. 이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Lings 2013, p. 618-626 참조)

예수님과 “사랑하시는 제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과 요나단, 룯과 나오미의 이야기와 병행됩니다. 복음서에서 여러가지 변형된 형태로 19 번 언급되는 “사랑하시는 제자”의 정체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상당한 논쟁이 있습니다. (Lings 2013, p. 645) 비록 교회 전통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을 자주 언급하지만, 그 증거는 빈약합니다. (Lings 2013, p. 644; 또한 Hanks 2000, p. 64 참조; Nissinen 1998, p. 121; Jennings 2003, p. 43) 좀 더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나사로입니다. (Lings 2013, p. 644) 본 연구의 목적상, 이 사랑하시는 제자의 정체는 논의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제자와, 공개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육체적으로 품에 안는 것을 포함하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에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요한복음 13:23-24). 요한복음에 기록된 바,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 앞에서 예수님과 이 제자가 서로 육체적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극단적인 어려움, 고통, 슬픔의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의 품에 안기는 것이 얼마나 의미있는 것인지는 우리 모두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3:23-24 입니다. 여기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께 특별한 접근권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제자의 존재와 역할이 요한복음의 보다 큰 내러티브 안에 녹아들어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링즈는 또 다른 제자(요한복음 18:15-16)로 언급된 인물은 사랑하시는 제자와 동일인일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23-24 의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 은 대부분의 현대 번역본들보다 그리스어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하나, 곧 예수께서 계속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님 매우 가까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인지 물어보라고 말했다.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주님, 그게 누구입니까?”하고 예수님께 물었다. [역주: 여기도 개역개정판과 상당히 달라서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 에서 직접 번역함.]

요한복음에서 이 제자는 예수님께 충절과 충성을 지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26 의 사건 기술에 따르면, 이 제자가 십자가 옆에 있었던 유일한 남성 제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Lings 2013, p. 645) 요한복음이 부활 이야기를 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그 소식을 시몬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에게 말했다고 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요한복음 20:2-4). 그는 부활을 처음 믿은 사람이고(요한복음 20:8), 부활 후 해변에서 예수님을 처음 알아본 사람입니다(요한복음 21:7). 많은 LGBTQI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거부와 판단과 핍박을 받아 힘들어할 때 이 이야기에서 큰 위로와 희망을 찾았다고 증언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LGBTQI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경험과 유사한 큰 헌신과 약속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파트너와 관련된 그들의 경험은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사랑에 대한 은유 혹은 설교인, 결혼에 대한 바울의 고찰과 유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성행위를 하였다고 믿을 이유도 없고 성경에 근거한 주장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이성 관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가 여기서 논의되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예수님께서 모범적이고 축복받은 제자로 여겨지는 남성 제자와 깊은 정서적 육체적 유대를 형성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 전통적으로 동성 성관계 금지와 관련되어 온 텍스트들은 교회 안에서 인간 및 적절한 성도덕에 대한 보다 넓은 성서적 가르침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연구는 우리에게 LGBTQI 그리스도인들을 정의롭고 평등하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대우할 성경적 근거를 많이 제공했습니다. 이는 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어떤 사람이 되도록 의도되었는지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본 연구는 동성 간의 깊은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성경에 긍정적으로 묘사한 예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상보성이 평등하고 정의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단서 하에 성적 상보성을 긍정하신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 삼의 성별 정체성인 고자를 인식하셨고 어쩌면 자신을 그들과 연관시키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인식하신 세 종류의 고자는, 태생적으로 그렇거나 선택 때문이거나 폭력적인 학대 때문에 성적 능력과 경험이 이성애라는 규범과 다른 남성들 및 간성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부류의 사람은 거의 언제나 노예와 연관이 되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고자가 성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3 장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이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라는 말씀을 읽을 때, 그러한 평등 안에는 성별 변이도 포함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 인식은 자기 시대의 소외되고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을 포용하셨던 예수님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는 인식이고, “사랑의 계명”의 도덕 논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원리들이 동성끼리의 성행위로 확장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서로를 사랑과 정의로운 평등으로 대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위에 요약된 원리들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증언은 동성인 사람들끼리 깊이 그리고 배타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며, 심지어 성적으로 서로를 갈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적 갈망에 기초하여 행동을 하면 그것은 죄가 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됩니까?

이것이 1994 년 총회의 성에 관한 성명이 도달한 결론입니다. 약간의 성경 연구를 한 후에 그 성명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6.20 그리스도인이 동성애 관행을 선택해도 괜찮을까요? 성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소명에 대한 보다 넓은 성경적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 텍스트들에 대해 간략하게 주석적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헌신된 이성애적 결합은 연합적 그리고 출산적 차원에서 창조와 너무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의도라고 여겨야 합니다. 성경도 다른 모든 성교의 상황을 하나님의 창조질서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만약 성이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선물이라면, 왜 그 표현을 절제하는 규칙이 있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성경은 영적 생활과 육체적 생활을 나누는 이원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와 같은 도시에서 문화적으로 허용된 성적 관행에 반대하여 바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도덕을 선포했는데, 그러한 도덕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그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자신을 성령의 성전으로 보아야 합니다(고린도전서 6:18-20). 비록 우리 사회가 성적 표현의 권리를 요구하고 그러한 절제는 대체로 무시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에 복종합니다.

6.21 돌봄의 질에 근거하여 동성 관계를 편들 수 있을까요? 일부 동성 관계의 사랑과 헌신이 교회가 인정한 결혼에서의 사랑과 헌신보다 더 강할 수도 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율법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율법과 사랑은 서로의 동반자이지 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 성경에서 사랑은 감상적이거나 멋대로 요동치는 감정이 아닙니다. 또한 주로 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종종 모든 욕망을 채우거나 인식되는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신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는 부인과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6.22 동성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하는 말은 ‘안된다’는 말 한 마디뿐입니까? 그저 부정적이지만 한 것은 목회적 민감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교회는 동성애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극심한 고통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사람의 고통이나 남녀 동성애자들의 인간적 잠재력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겨서도 안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힘에 대해 우리가 증언하라는 성경의 소명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됩니다.

6.23 우리 사람들은 서로가 필요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사회적 교제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적 교제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날 사회가 그렇지 않다고 외칠지라도,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모두에게 독신의 삶은 성교 없이도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타고난 성은, 우정이나 호의나 만짐이나 서로에게 속하기 등과 같이 생식기의 활동이 아닌 다른 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성애 성교, 다른 편으로는 고립과 억누름의 고통, 그 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환영받고 양육받고 사랑받고 지지를 받는 환영과 사랑과 지지의 공동체, 참된 교회 가족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슬프게도 기독교회는 동성애자들을 멀리했고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동성애 혐오와 위선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우리가 이성애자이든 동성애자이든, 우리가 거룩한 삶을 향한 여정을 함께 추구해 나갈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용서와 서로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풍성하며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6.24 동성애적 순결에 대한 우리의 요청을 불가능한 이상이라며 거부하거나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이라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적 순결은 은사이고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런 은사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회개없이 우리를 용납하는 값싼 은혜도 아니고 또한 힘이 없는 은혜도 아닙니다. 복음은 그 안에 변화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힘도 담고 있습니다.

1994년 성명의 결론을 인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그 보고서는 간단한 주석 작업만 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 현명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목회적 돌봄과 관련된 이 보고서의 함의는 매우 광범위하며 여러분의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조심스러운 자문과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함의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철저히 생각해 보기 전까지는, 인간의 성에 대한 어떤 기독교적 입장도 확정적이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 이후에 성적 성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깊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이해는 결론에서 언급된 목회적 돌봄과 관련된 함의를 밝히는 데 기여합니다. 그 이해에는, 1994년 보고서에 제시된 그런 입장이 자신들을 긍정하지 않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취약한 LGBTQI 십대와 성인들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강한 증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1994년 성명과 지금까지 수행한 성경 연구 사이에 있는 몇 가지 긴장점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합니다. 그 긴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은 근본적인 성별 상보성이 모든 용납할 수 있는 기독교적 관행의 근거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타적인 주장은 지금까지 우리의 연구에서 지지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 1994년 성명은 고자의 지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구하거나 논의하지 않습니다. 1994년 성명은 또한 창세기 2:24을 읽을 때, 모든 성관계에 성별 상보성이 있다는 배타적인 생물학적 규칙으로 이끄는 어떤 특정한 해석을 취합니다. 그러한 배타적인 주장은 예수님의 가르침, “사랑의 계명”, 문화적 맥락과 텍스트 자체의 스타일에 대한 이해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지도 않고 지지되지도 않습니다.
- 성명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동성 성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명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그 보고서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증언에 비추어 인간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완전한 성경적 이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보고서는, LGBTQI 자매들과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보고서는 자신들의 관계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LGBTQI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최소한 그 정도는 요구합니다.
- 성명은 또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성경에 있는 “정욕이 불 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성적 욕망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9) 그리하여 그 성명은 하나님과 기독교 공동체 앞에서 LGBTQI 그리스도인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부인하고, LGBTQI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강하게 경험하는 성적 욕망을 사랑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룩한 방법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평등한 대우를 부인하고 욕망이라는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성취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보아야 합니다.

1994 년 성명의 결론은, 동성간의 성적 활동에 대해 무언가를 말한다고 흔히들 가정하는 성경 텍스트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루어진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런 텍스트들이 실제로 어떤 것을 말할까요?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텍스트들을 다음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것입니다.

1. 남성 아니면 여성이라는 성 상보성이 거룩한 성교의 근본적인 조건입니까?
2.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창세기 19 장)는 적절한 성에 대해 어떤 것을 가르칩니까?
3. 레위기 18:22 과 20:13 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 동성간의 모든 성 활동은 악한 것이며 “본성을 거스르는”(로마서 1 장) 것입니까?
5. 바울 서신들이 언급하는 “악행 목록”은 어떤 종류의 성적 행동을 언급합니까(고린도전서 6:9 과 디모데전서 1:10 에 대한 해석과 번역의 역사)?

4.1 남성 아니면 여성이라는 성 상보성이 거룩한 성교의 근본적인 조건입니까?

남성 아니면 여성이라는 성 상보성 이론에 대해서는 위의 연구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결혼 언약 안에서 표현되는 남성 혹은 여성의 성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용납되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적절한 성관계를 위해서는 언약적 관계가 필수적인가 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사랑의 계명”의 빛에 비추어 볼 때 성경의 가르침이 이미 가정하고 있고 잘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질문은, 남성 아니면 여성이라는 둘로 이루어진 쌍이 성적 친밀함의 적절한 표현을 위해 근본적이거나 필수적이거나, 아니면 근본적이거나 필수적이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성 성관계들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1994 년 성명의 결론은,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성적 상보성이 진실로 근본적이고 규범적이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 주장은 창세기 1 장과 2 장의 창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오직 남성들과 여성들만 창조하신다는 증거로 해석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론은, 그리스도인의 성관계가 적절한 것이 되려면 반드시 출산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필요로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 예수님께서 창세기 2:24 에 대해 하신 언급,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이 이 이론에 대한 추가적인 지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 장이, 동성간 성관계는 그 정의상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거스르는 것이고 따라서 죄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때로 이 주장의 전개에 사용됩니다. 로마서 1 장과 그 장이 로마서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선 창세기의 창조 텍스트들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1994 년 성명이 취한 접근법은, 창조 이야기는 인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성(無性)의 신적 본질이 아니라 성적으로 분화된 것이라는 생각을 확고히 해 준다는 신학적 주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남성과 여성, 그리고 생물학적 분화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주의 학자 메간 드프란자(Megan DeFranza)는 이 견해에 도전합니다. 20 세기의 변증법적 신학에 뿌리를 둔 이 특정한 강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이 성별과 성기를 초월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삼위일체적 관계 모델이 아니라 두 요소로 이루어진 성 분화 모델을 확립한다는 것입니다. (2015, p. 148)

이러한 신학적 전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분화를 “보통 그렇다”라는 수준에서 그래야만 한다는 수준으로 격상시킵니다. 본 성경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창세기 이야기에 근거하여 이런 규범을 만들어내는 것은 신학적 해석 행위이지 단순한 성경 해석 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면 남성이거나 여자인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도한 “존재론”의 일부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남성이거나 여성인 것은 인간 본성의 일부이고, 하나님은 인간이 오직 남성이거나 혹은 여자인가 둘 중 하나만 되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체의 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 상태로 태어난 간성인들에게, 이것은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인간 이하의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성적 성향이 이성애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병적 비정상 상태이고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창세기의 텍스트를 읽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읽기는 우리의 LGBTQI 자매들과 형제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계명”에서 출발한 결론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성별 상보성을 규범의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의 문제는 위의 1.4 절에서 이미 논의하였습니다(p. XXX). 우리가 지적한 것처럼, 장로교인들은 창조와 관련된 이러한 텍스트들을 문자적으로 그리고 규범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7 일간의 창조를 은유적으로 이해하고, 에덴 동산과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창조세계와의 관계 측면에서 은유적으로 이해합니다. 이 창조의 시와 이야기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올바름과 선함, 인류가 공동체 속에서 함께 번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 가족이나 친족의 유대를 형성하기 위해 함께 언약을 맺는 사람들 사이에 신실함의 적절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배울 점은 훨씬 많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여러 신 가운데 하나인 창조의 객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강조한다는 면에서 주변

문화의 이야기들과는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만이 아니지만 서로에 대하여 그리고 창조세계에 대하여 깊은 사랑과 정의와 책임의 관계를 이룬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읽는 우리의 논리는 당시의 문화와 세계관을 고려하여 그 구절들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들에서 과학 이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그런 구절들에 다른 은하계 같은 것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텍스트들을 우리의 LGBTQI 자매들과 형제들에 대한 책임성 속에서 읽으려면 우리는 성과 성별에 대한 문화적 맥락을 적용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24 에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를 “붙좃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두 여자가 깊은 언약적 사랑 안에서 서로 “붙좃는” 것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임스 브라운슨(James Brownson)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이라는 개념과 “헤어짐과 붙좃음”이라는 히브리 개념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제공하면서 이 텍스트를 생물학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에 도전하고 있습니다.^{xi} 장로교인인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해하여, 인간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 논의하였습니다.^{xii} 실은, 우리가 이러한 텍스트들을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 모범의 빛 아래에서 읽으면, 성별 정체성과 성적 성향이 대다수와 다른 사람들을 훨씬 관대하게 정중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창세기 1 장과 2 장은 우리에게 성별 변이와 성적 성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가르치도록 의도된 텍스트가 아닙니다. 언약적 친밀 동성 관계에 대한 성경적 시각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는 우리의 현재의 과제는 우리로 하여금 상상력을 발휘하여, 어떻게 하면 아웃사이드들, 불결한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고자들의 성별 모호성과 변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태도를 언약적 동성 관계로 확장할 수 있을까 생각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은 언약적 동성 관계들에 대해 우리가 관대하고 정의롭고 수용적이 되라고 인도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만약 하나님께서 동성 성관계를 거부하신다는 가정을 가지고 성경의 텍스트에 접근하면, 성관계에 대해 남성 혹은 여성만이 규범이라는 주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 장과 2 장 텍스트들의 시적이고 서술적인 문체, 당시의 가부장제와 문화적 규범의 영향,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의 계명”을 고려하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4.2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창세기 19 장)는 적절한 성에 대해 어떤 것을 가르칩니까?

1994 년 총회의 성에 관한 성명은 창세기 19 장의 이야기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1994 년 이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 대한 연구가 늘어났습니다. 기독교 전통은 4 세기 이래로 소돔의 죄에 반대하는 가르침을 형성하였기에 이러한 변화는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죄는 본질적으로 창세기 19 장의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전통을 완전히 논의하는 것은 본 성경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몇 가지 사실을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소도미라는 개념과 소돔의 죄는 “동성애”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xiii} 둘째, 소도미에 대한 정의와 이해는 이성애자의 과도한 성행위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를 띠었습니다. 셋째, 이 가르침의 역사에는 소도미를 범했다고 고발된 사람들에게 자행된 교회의 가장 부끄러운 행위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발된 사람들에 대한 심한 고문,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굶겨 죽이기, 기둥에 묶어 산채로 불태우기, 성기를 절단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개혁/장로교 전통에서도 이 끔찍한 역사는 이어졌습니다. 개신교의 제네바에서 소도미를 범했다고 고발된 희생자들은 바퀴에 묶어 죽였습니다(수레바퀴에 묶어 놓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때려 죽임). 공개적으로 화형에 처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성 동성애로 고발된 한 여자는 죽을 때까지 물 밑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노예들은 공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개신교의 네덜란드 공화국에서는 “소돔 사람들”을 박해한다며 아동 학대를 하기도 하고, 십대 소년들을 큰 물통에 집어 넣어 눌러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기독교회가 이런 전통에 관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계명”의 명령과는 거리가 한참 먼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것이었습니다.^{xiv}

창세기 18-19 장을 일반적으로 동성 성교를 다루는 텍스트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일어난 변화인데, 유대인 학자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를 그 기원으로 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구약에서 이 텍스트는 매우 중요해서 20 곳에서 언급됩니다. 구약에서 이 텍스트가 언급될 때마다 이 이야기의 의미에는 네 가지 기본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파괴, 황폐함, 몰락이라는 심판의 정도가 매우 심함(신명기 29:2; 이사야 13:20-21; 예레미야 49:18 and 50:40; 이사야 13:21; 예레미야 50:39; 예레미야 49:17; 아모스 4:11; 스바냐 2:9).
- 소돔 사람들의 교만과 오만(에스겔 16:56; 에스겔 16:49-50; 이사야 13:19; 예레미야 49:14-18; 예레미야 50:29; 예레미야 50:31; 예레미야 50:40; 스바냐 2:9-10).
- 소돔의 죄를 배교와 우상숭배로 파악함(신명기 29:22-25; 신명기 32:32-33; 이사야 3:8-9; 예레미야 50:38; 에스겔 16:48-51).

-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부패 및 억압과 관련시킴(예레미야 23:14; 이사야 1:21-23; 이사야 1:10; 이사야 1:15-16).

히브리의 구약 전통은 소돔의 죄를 성적 활동과 연관시키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신약에도 아홉 번 언급되는데 그 용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갑작스러움에 대한 은유(마태복음 11:23-24; 누가복음 17:29-31).
- 복음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과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문제와 어느 정도 연관(마태복음 10:15; 누가복음 10:12).
- 구약 선지서들의 주제와 유사한 곳(로마서 9:29; 요한계시록 11:8).

나중에 쓰여진 자료인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에도 언급이 있습니다. 유다서가 아마도 베드로후서보다 먼저 쓰여졌고 베드로후서는 유다서와 기타 성경외의 저술들(위서: ‘모세 승천기’와 같이 성경 속의 특정 인물이나 시대와 거짓되게 연결을 짓는 거짓 저술들)에서 이 부분을 인용했을 것입니다. (Lings 2013, p. 276-278) 이 신약 후기 전통에서는 소돔의 죄를 성적 부도덕과 연관짓는 새로운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도덕은 동성 활동이 아니라 과도한 이성애입니다. (Lings 2013, p. 278; 또한 Lings 가 언급하는 Carden 2004 및 Miller 2010 도 참조) 유다서 7 절이 “동성애적 활동”(예: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을 가리킨다는 것을 암시하는 현대 번역들은 실제 그리스어 텍스트(“다른 육체”는 당시의 문화적 맥락에서 동성애 활동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었음)에는 없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위서 자료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정죄하려는 번역상의 편견은 “소도미”라는 관념의 발달과 관련된 현대의 선입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관념은 후대의 기독교에서 생깁니다. 신약 성경 이후 다시 두 세기가 지난 후에, 유대인 학자인 알렉산드리아의 필로가 한 주장, 즉 소돔의 주된 죄는 동성 성행위였다는 주장을 기독교 제국을 일으킨 사람들이 채택했습니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성경 번역은 후대의 기독교 사상 전개에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LGBTIQ 자매들과 형제들에 대한 책임성 속에서 이러한 텍스트를 책임적이고 정직하게 읽기 위해서는, 소돔의 죄에 대한 후대의 관념 때문에 원래 성경 텍스트에서는 지지되지 않는 견해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9 장은, 그 도시의 남자들이 롯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하려고 했던 나쁜 일들이 동성 성관계였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면 놀라운 해석의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누구를 “안다”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고전 히브리어에서 누구를 안다(yada)는 개념은 종종 “누구와 성관계를 갖다”와 같은 뜻인 경우가 많았습니다.^{xv} 그러나 구약에서 이 용어의 용례에 대한 연구는 이 용어가 복잡한 뜻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8-19 장에서는 히브리어 텍스트에 그 어구가 병행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합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려는” 하나님과(창세기 18:21), 하나님의 방문자들을 “알려고” 하는 소돔 남자들(창세기 19:5) 사이에 병행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yada”의 두 격려형^{xvi}으로서 성적인 행동보다는 상호 조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학자들은 지적합니다. 창세기 19 장에서 묘사하려는 것은, 종교재판처럼 폭력과 고문이 동반된 취조를 하려는 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xvii} 텍스트 자체의 형태가 제의하는 이런 이해는 신약 성경이 시사하는 바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즉, 소돔의 죄는 이방인과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정의롭지 않게 대하며 박절하게 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9:5 의 텍스트를 동성애에 대한 성적 욕망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폭력적인 강간을 범하려는 욕망이기도 합니다. 이 텍스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이것은 어떤 형태의 악하고 폭력적이며 학대하려는 의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동성 파트너들 사이의 연약적 사랑의 관계를 정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성경적 통찰은 또한 오늘날 장로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4 세기 이후의 소도미의 죄라는 관념 발달을 비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4.3 레위기 18:22 과 20:13 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자료를 논의하는 동안 1994 년 성명의 6.7 절은 레위기 18:22 과 20:13 을 언급합니다. 성명은 이 텍스트들을 길게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텍스트들, 그 텍스트의 청자가 누구인지, 어떤 종류의 행동을 이 텍스트들이 실제로 금하는지도 자세히 살피지 않습니다. 또한 1994 년 성명은 구약의 “성결법”에 있는 이런 텍스트들을 오늘날의 기독교 윤리에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로교인들은 이 두 텍스트들이 모든 형태의 동성 성관계를 분명히 금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텍스트들이 LGBTIQ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취급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두 텍스트들에 대해서는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링즈에 의하면, 이 텍스트들에서 어떤 종류의 성 행위가 실제로 금지되는지에 대해서는 유대교와 기독교 안에 최소한 12 가지의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2013, p. 228) 물론 문화적 맥락과

우리가 기원전 7 세기의 유다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분명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텍스트들에 대한 간단하고 분명한 해석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전 히브리어와 그 해석, 그리고 맥락상의 이슈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지속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이 두 텍스트들을 볼 때 우선 분명히 해두어야 할 점은, 당시 히브리 문화의 가부장 체제에서 이 텍스트들의 의도된 청자는 히브리 남자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레위기 18 장과 20 장의 맥락 속에서 다른 성적 금지들은 결혼의 가부장 체제와 가족간의 친족 유대가 어떻게 위반될 수 있는지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결혼한 히브리 남자가 결혼법에 근거한 친족 유대를 위반하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는, 아내에게 자신의 정자를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에 의해 임신이 될 수 있는 권리가 가부장적 결혼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결정했습니다. 자위와 같은 성적 행동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오난이 그랬던 것처럼(창세기 38:9-10) 성교에서 씨를 흘리는 것은 위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Milgrom 2000, p. 1567) 그렇게 보면, 장로교인들이 성교를 하는 동안 피임을 하는 것과 같은 오늘날 용납되는 관행도 “성결법”에 의한 결혼 유대를 위반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레위기 18 장에서 남성 동성 성교와 연관되는 텍스트 바로 앞에는 몰렉 신에 대한 우상숭배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당시 주변 중동 문화들의 법에 비추어 레위기 18:22 과 20:13 의 금지조항들을 자세히 살핀 후, 랍비 야콥 밀그롬(Jacob Milgrom)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기원전 7 세기 유다에 이 특정한 금지가 있었던 이유는 출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성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00, p. 1567) 이 주장은 그 텍스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주장들의 맥락, 문화적 맥락, 그리고 “P” 전승과 “H” 전승 이론들을 보면 힘이 실립니다(“P”는 레위기 18:22 앞에 있는 절의 몰렉 숭배 언급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순수한 제의에 대한 제사장적 관심을 말하고, “H”는 땅의 정결에 대한 보다 넓은 관심입니다). 밀그롬은 “성결법”에서 히브리어의 복수 시제는 금지되는 성관계를 표현하고 단수 시제는 용납되는 관행을 표현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히브리어로 그 텍스트는 문자적으로 대략 “한 남자는 여자들의 ‘누움들’처럼 한 남자와 눕지 말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 학자들이 이 텍스트의 “여자들”은 “아내들”로 그리고 “누움들”은 침대들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한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Lings 2013, p. 206-212) 이 텍스트의 맥락에서 밀그롬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습니다.

miskiibe 'isso 라는 용어는 허용되지 않는 육체적 관계를 암시하기 때문에, 동성에는 오직 이성 관계들(즉, 그 앞 절들에 열거된 이성 관계들)이 금지된 정도와 동일한 정도로만 금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D. Stewart). 그러나 이러한 관계 밖에 있는 남성들과 발생하는 성교는 금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miskebe 'isso 라는 동일한 용어가 제재 목록에서 사용되기 때문에(20:13), 가장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남성들과의 성교는 정죄하거나 처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지되는 남성/여성 관계를 표현하는 miskiibe 'isso 는 남성/남성 관계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절의 문자적 의미는 ‘그 남자의 과부와 성교가 금지된 남자와 성교를 하지 말라’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동성에 금지되는 아버지, 아들, 형제(6 절에 포함됨)와의 섹스에 적용되고 할아버지-손자, 삼촌-조카, 의붓아버지-의붓아들에게 적용되지만 그 외의 남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0, p. 1567)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결법”에 대한 이런 유대교의 시각과 그 적용점을 참고한다면, 심지어 이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치더라도 이 텍스트가 언약적 동성 성관계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각은 결혼에서의 성적인 부정직함과 어찌면 더 넓은 친족 가족 시스템 내의 남성들에 대한 근친상간적인 착취의 다른 형태들에 대한 금지 지침이 됩니다. 링즈(K. Renato Lings)는 이 두 텍스트들을 그 맥락과 문장 구성을 참고하여 동성 근친상간에 대한 금지로 읽어야 한다는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합니다. (2013, p. 232-238)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언약과 사랑의 유대를 해치는 남성 간의 성교 종류를 금지합니다. 이 텍스트를 그렇게 읽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의 논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텍스트들과 그 안에 담긴 금지는 히브리어의 너무도 희귀한 문장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금지를 마치 모든 형태의 동성 성관계를 일괄적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읽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부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만약 텍스트의 의도가 그런 것이었다면, 그냥 “너는 남자와 눕지 말라”라고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지적합니다. (Stewart 2006, p. 97)

비록 이러한 텍스트들의 번역과 그 의미에 대한 보다 자세한 토의는 계속되겠지만, 위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이 분명해집니다. 텍스트의 성경적 문화적 맥락을 참고하고 고전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고려하면, 이러한 텍스트들은 우리가 오늘날 아는 바와 같은 언약적 동성 성관계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규범적 금지라고 단순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레위기

“성결법”의 도덕법들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는 아직 고려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증언과 특히 위대한 “사랑의 계명”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이러한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위에 인용된 해석자들은 레위기 18:22 과 20:13 이 결혼에서 충절을 지키도록 하고 확장된 가족 내의 다른 이들을 성적으로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히 지적한다는 면에서 이 도덕적 가르침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구약의 일부 다른 텍스트들이 모든 형태의 동성 성관계를 금지한다고 인용되는 수가 있지만, 그런 텍스트들은 동성 관계, 혹은 언약적이고 충절을 지키는 동성 관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여자와 여자의 성관계에 대한 금지는 없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성교가 친족의 유대라는 가부장적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므로,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떨까요? 로마서 1 장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동성 성교는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고 따라서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지 않나요?

4.4 동성간의 모든 성 활동은 악한 것이며 “본성을 거스르는”(로마서 1 장) 것입니까?

3 세기 이후의 기독교가 그렇게 했듯이 창세기 19 장, 레위기 18:22, 레위기 20:13 이 모든 형태의 동성 성교를 금지한다고 가정한다면, 로마서 1 장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읽도록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 장이 실제로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 진술의 맥락은 어떤 것이고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위에 인용된 구약 텍스트들을 언급하고 그 텍스트들을 그런 식으로 읽을까요? 이 장은 그리스도인의 성도덕에 대한 일종의 보편적인 지침일까요?

로마서 1 장의 근거가 된다고 자주 가정되었던 구약 텍스트들이 실은 모든 형태의 동성 성교에 대한 규범적 거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위에서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LGBTQI 자매들과 형제들에 대한 책임성 안에서 이러한 텍스트들을 읽도록 조심스럽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텍스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증언과 그의 “사랑의 계명”에 종속시켜서 읽어야 합니다.

1994 년 성명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6.10 로마서에서 바울은 동성에 관행에 대한 정죄를 확대하여 여자와 여자 사이의 성적 활동도 포함시킵니다. (1:26-27) 동성에 관행은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더 경배하는 우상숭배(21-22 절)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작용하고 있는 예로서 악행 목록(29-31 절)과는 분리되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억눌렀기 때문에, 생각이 왜곡되고(21-28 절) 있어서는 안될 저 모든 일들을 행하는 길이 열렸습니다(29-31 절). 바울은 특히 동성에 관행을, 남자와 여자 사이의 ‘순리(본성에 기초한, natural)’ 관계를 ‘역리(본성을 거스르는, contrary to nature)’ 관계로 바꾼 것이라며 정죄합니다.

로버트 가농과(2001, p. 229-230) 칼롬 카마이클(2010, p. 173)도 비슷한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1:26-31 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1994 년 성명의 주장이 텍스트와 텍스트의 문화적 맥락 혹은 현재의 학문과는 상관 없는 가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 1994 년 성명은 놀랄 정도로 빈약하게 기술하고 있고, 1994 년에 이미 입수할 수 있었던 학문적 저술의 많은 부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로마서의 이 부분의 수사적 구조에 대한 헨드릭 하트(Hendrick Hart)의 논의를 다른 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하고(HS1994, 6.1.3), 하트의 주장을 거부하는 예는 하나도 들지 않으며 왜 그런 저자들이 거부하는지 이유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최소한 충분히 주목할 가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장들은 로마서의 보다 큰 서술 구조 속에서 고려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자리를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로교 해석 전통에서는 텍스트를 성경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994 년 이래로 로마서에 대한 연구가 극적으로 늘어나서 텍스트를 더욱 조명해 주고 1994 년 성명이 내린 그런 종류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1994 년 성명은 설명 없이 로마서 1:26-27 이 “여자와 여자 사이의 성적 활동”을 거부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초대교회가 로마서 1:26-27 을 한 번도 그런 식으로 해석한 적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Augustine)과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는 그런 텍스트들을 이성애 활동으로 파악했습니다. (Brownson, 2013, p. 207) 사실, 최초로 이 두 절을 여성 동성에 관계에 대한 언급으로 읽은 사람은 4 세기의 세인트 크리소스툼(St. Chrysostom)입니다. (Lings 2013, p. 524) 그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들이 여성 이성애자들의 악할 정도로 과도한 성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1994 년 성명은 또한 “동성에 관행”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범주이며 [로마서] 저자의 의도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 장, 그 텍스트의 맥락과 문화적 맥락, 그리고 본 성경 연구에서 우리의 질문에 대해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최근의 논의는 브라운슨(Brownson, 2013, p. 204-222)과

링즈(Lings, 2013, p. 521-563)의 저술입니다. 이들 저자들은 서로 텍스트 번역, 해석의 역사, 문화적 맥락, 그리고 이들 텍스트들에 대한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쓰여졌고 그 공동체 내의 문화적 맥락과 그 안에서 제기되는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또한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놀라운 은혜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의견과 관행들에 대해 이 은혜가 의미하는 바를 보여주기 위해 긴 주장을 펼칩니다. 이 큰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로마서 1:26-27 을 읽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전체를 그 문화적 맥락에 비추어 읽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서론에는 당시 로마 문화 안에 있던 성별에 대한 편견과 여성 혐오에 대한 최근의 학문적 연구의 개요를 제시해 두었습니다.

장로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바울의 글들을 해석할 때 가부장적이고 위계질서적인 편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미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역사의 의미를 고려해야 합니다.

1994 년 성명과 같이 로마서 1 장을 취급하는 해석은, 4 세기 기독교에서 시작된 특정한 해석 전통에 속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해석의 측면들은 중세 교회와 그 후의 개혁신교회와 장로교회로 하여금 소도미의 죄를 지었다고 고발된 사람들에 대한 극단적인 폭력, 고문, 아동 학대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역사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요약은 루이스 크롬프톤(Louis Crompton)의 저술에 담겨 있습니다(2003). 로마서 1:32 의 바울의 문구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가 우리의 장로교 혹은 개혁신교를 포함하는 교회 내에서 이러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xviii} 이것은 “본성에 거슬러”에 대한 해석과 결합하여 기독교에서 가장 극심하고 극악한 도덕적 실패의 형태로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러한 해석 전통은 아프리카에서 LGBTQI 인들을 처형하려는 공식적인 노력을 지지하는 데, 그리고 LGBTQI 인들에 대한 군중 폭력과 증오 범죄를 지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회과학 연구에 의하면 그런 견해를 견지하는 종교단체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LGBTQI 인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Myer & Dean 1988, p. 170-182) 오늘날 캐나다에 있는 장로교인 우리는, 도덕적 양심으로 이 구절을 매우 조심스럽게 읽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도록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6-27 을 조심스럽게 읽을 때 반드시 1994 년 성명이 내린 결론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 우리는 문화적 맥락의 편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로마서 1:26-27 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은 대부분 바울이 그런 말을 썼을 때 그가 어떤 의미로 썼는지 혹은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확정적인 답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모든 동성 성교에 대한 보편적인 거부로서 그 진술을 썼다고 주장합니다. 욕육과 관련하여 매우 악한 이성애적인 사람들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마구 성교를 해대는 고삐 풀린 성적 향연을 탐닉했는데, 바울은 오직 이런 사람들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운슨은 이 텍스트들에 담긴 바울의 언어는 가이우스 칼리굴라의 궁정에 벌어진 극단적인 일들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 일들은 잘 알려져 있었고 당시 자존감이 있는 모든 로마인들이 욕하는 일들이었습니다. (2013, p. 156ff)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초대교회는 로마서 1:26 에 있는 바울의 진술을 여성 동성애가 아니라 극단적인 이성애의 한 형태로 해석했습니다. 다양한 이론들 중 어떤 것도 최종적으로 혹은 확실하게 증명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당시 로마와 유대의 문화는 여성 혐오라는 깊은 성별 편견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성별 편견이 동성 관계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남성 파트너에게도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리라는 것은 합리적인 가정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상호 존중과 사랑으로 부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모든 성경 텍스트에 적용해야 된다고 믿는 장로교인인 우리가 그러한 문화적 편견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성혐오를 지지하지도 않으며, 여자 혹은 여자같은 행동은 저급하고 욕육적이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자격이 없는 행동이라고 가정하는 그런 편견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텍스트들이 오늘 우리의 상황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기독교 공동체에 해를 가져올 수 있는 과도한 성적 행동을 바울은 분명히 거부합니다. 사실 바울이 묘사하는 악함의 다른 특징들에는 “탐욕, 불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 교만,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로마서 1:29-31)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예외적으로 그리고 고의로 악한 사람들이라는 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 목록에는 도덕적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장로교회 안에 있는 언약적 관계의 LGBTQI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가정하거나 무비판적으로 그들을 그런 행동과 연관짓는 것은 거짓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LGBTQI 자매들과 형제들에 대해 도저히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 될 것이며 “사랑의 계명”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 될 것입니다.

- “본성을 거스르는”에 대한 해석을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26 절과 27 절 모두에, 자연스러운 것을 자연스럽지 않은 것으로 바꾸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긴 변천의 과정을 거쳐 이 진술은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of Aquinas, 1225-1274)의 신학에서 “본성을 거스르는 죄”가 되었습니다.^{xix} 1994 년 성명은 라차드 헤이즈(Richard Hays)를 출처로 인용하면서 “본성을 거스르는” 필요라는 바울의 표현은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거스르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HS1994, 6.11) 비록 바울이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의도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신념은 오늘날 장로교인인 우리가 거부하는 가부장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문화적 편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1994 년 성명이 올바르게 지적하듯이, 바울은 여기서 이교의 영향 아래에 있는 로마의 죄상을 열거하느라고 바쁩니다. 바울은 그 이교도들이 양심으로 자연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자와 남자에 대해 그들의 문화에서 어떤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지에 대해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다(natural)”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좋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어 어구(kata phusin 또는 para phusin)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시의 문헌에 많이 나오지만, 보다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 어구는 바울의 글 다른 곳에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남자들은 머리를 기르면 안된다고 주장할 때 이 “phusi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남자들이 머리를 기르면 안된다는 것은 당시의 신념과 관습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로마의 여성 혐오적인 성별 편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고린도전서 11:14). 텍스트와, 그 문화적 맥락과, 동일한 어구를 바울이 다른 곳에서 쓴 것을 고려하면, 바울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한 것은 로마 문화의 맥락에서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것을 가리킨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 우리는 이러한 텍스트들을 로마서의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로마서 1 장에서 바울은 수사적 주장을 펼쳐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독자들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로마 시민이라면 끔찍하게 싫어할 만한 것을 바울이 비난할 때, 그는 그런 행동에 대해 독자들이 그런 행동을 감정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18-32 에 있는 진술들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2:1 에서 바울의 주장은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2:1 에서 나오는 바울의 주장과 같은 자기 성찰은 빨리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로마서 1:18-32 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의도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자신들은 판단을 받지 않을 것처럼 믿는 것 같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정죄하는 것은 자기 의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 서신의 첫 번째 섹션의 일부로서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의 죄성을 보여주기 위한 한 단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과격한 소식(로마서 3-5 장)을 기뻐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는 바울은 보다 큰 이 주장을 사용하여 신앙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상호 존중의 행동을 로마인들에게 가르칩니다(로마서 14 장).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1:18-32 에 묘사하는 것이 악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텍스트의 의도는 “동성애” 혹은 “동성” 관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형태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화적 성별 편견에 대해 이해하고 비평적인 고려를 하면, 이러한 텍스트가 모든 종류의 과도하고 파괴적인 성행위를 정죄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지, 이러한 텍스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언약적 친밀 관계 안에 있는 LGBTQI 자매들과 형제들을 정죄하신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로마서 1:26-27 이 창세기 1 장과 2 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도출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도출되는 것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묘사된 것은 창조시에 오직 남자와 여자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고, 그렇다면 남성/여성 사이의 성교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1994 년 성명은 로마서 1:26-27 에 대한 논의에서 직접적인 연결을 짓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주장에 가까운 어떤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

주장의 문제는, 이미 편견을 가지고 바울에게서 그런 해석을 찾아내기 위해 텍스트에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 장에 있는 바울의 주장에 그가 창세기 1 장이나 2 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표시는 전혀 없습니다. 텍스트 자체에서 그런 연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텍스트 자체와 바울이 다른 곳에서 유사한 어구를 병행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로마 문화의 맥락 안에서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것과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지는 것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오직 남성 혹은 여성만을 창조하셨기에 모든 동성 성관계는 악하다고 믿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임스 브라운슨(James Brownson)은 바울 당시의 명예와 수치라는 큰 문화적 틀과 관련하여 로마서 1:26-27 을 매우 자세히 논의하고, 이러한 텍스트들에 대한 해석에서는 그리스- 로마 세계의 명예- 수치 코드라는 도덕 논리를 감안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2013, p. 222) 바울 시대의 문화적 편견에 대한 비평적 평가를 고려한 후에, 브라운슨은 이러한 텍스트가 오늘날의 LGBTIQ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평가할 수 있고 또 평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2013, p. 222) 성령께서 교회 내의 노예제도와 인종과 성의 평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수정하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또한 언약적 관계 안에 있는 LGBTIQ 자매들과 형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증언의 빛 아래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 26-27 을 언약적 동성 성관계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거부라고 읽는 것은 로마서의 맥락 속에 있는 의도를 넘어서서 이 텍스트를 곡해하는 것이고, 가부장적 남자다움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겼던 그리스- 로마 문화의 여성 혐오적인 명예- 수치 성별 편견을 무시하는 것이며, 바울이 1 장 끝까지 묘사하는 그런 종류의 악한 행동을 작정하고 하지 않는 우리 공동체 내의 LGBTIQ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 그들이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로마서 2: 1 에 있는 바울의 주장을 놓치는 것인데, 바울은 거기서 독자인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 스스로를 살피도록 초대합니다. 이 텍스트는 언약적 동성 성관계를 정죄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가 아닙니다.

4.5 바울 서신의 “악행 목록”에는 어떤 종류의 성 행위가 언급됩니까?

기독교가 동성 성관계를 완전히 혹평하는 근거로 흔히 인용되는 “악행 목록”이 바울의 글에 두 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인용되는 텍스트는 고린도전서 6:9 과 디모데전서 1:10 입니다. 이 두 악행 목록에서 “동성애”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정죄되고 있는 것으로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 도 분명히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입니다(고린도전서 6:10). 1994 년 성명의 매우 짧은 논의도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6.8). 놀랍게도 1994 년 성명은 짧은 단락 안에서, 성경 해석자들을 괴롭혀왔던 그리스어 단어들에 대한 확정적인 번역(“남창”과 “소돔사람”)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한다”는 애매한 언급으로써 그러한 번역에 권위를 부여하지만, 그렇게 동의하는 학자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 1994 년에 학자들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목록을 해석하기 위해 많은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작업의 결과로 그런 텍스트들을 번역할 때 “남창”과 “동성애자들” 혹은 “소돔 사람들”을 사용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런 텍스트들에 번역된 두 그리스어 단어들은 malakoi 와 arsenokotai 입니다 (arsenokoitais 는 디모데전서 1:10 에 사용되었고 malakoi 는 디모데전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xx

고린도전서 6:9 과 디모데전서 1:10 의 해석과 번역의 역사는 어떠할까요? Malakos 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부드러운” 또는 “부드러운 것들”이란 뜻입니다. 제롬(Jerome)은 이 단어를 라틴어 성경(벌게이트)에 번역할 때 라틴어 mollis 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부드럽다, 휘 수 있다, 유연하다, 또는 미세하다”란 뜻이지만 또 나약하다, 남자답지 않다, 여자 같다, 가냘프다, 혹은 약하다는 뜻도 될 수 있었습니다. (Lings 2013, p. 494) 위클리프(Wycliffe)는 malakos 를 “색을 너무 밝히는 남자들”로 번역했지만, 후에 틴데일(Tyndale, 1526)과 코버데일(Coverdale)은 이 단어를 “허약한 사람”으로 번역했고, 제네바 성경(1560)은 “음탕한”으로 번역하면서 각주에 이것은 부도덕하고 정숙하지 못하며 음탕한 행동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Lings 2013, p. 495) 킹제임스 번역(The King James Version)은 malakos 를 “나약하다”로 번역했습니다. 그 뒤의 번역들에는 “미동[역주: 섹스를 위해 노예로 부리던 소년]”(James Moffatt’s Bible), “수동적인 동성애 파트너” (Lexham English Bible), “동성애자들”(New King James Version), “남창”(New Revised Standard Version) 등 여러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일한 단어가 마태복음 11:8 에 나타날 때는 다들 같은 단어로 번역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의 모든 번역들에서 이 단어는 즐길 만한 부드럽고 넉넉한 옷과 세례 요한의 검소한 옷을 대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malakos 라는 단어는 “동성애 활동에서 수동적인 파트너 역할을 하는 남자들과 소년들”을 언급한다는 1994 년 성명의 결론은, 이 단어의 복잡한 용법과 바울 시대와 교회사 내내 이해되던 방식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Malakos 와 그 앞에 있는 단어 pornoi 를 “남창”으로 번역하는 번역본들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신약 그리스어에서 pornos

또는 그 복수형 pornoi 가 무슨 의미였는지에 대해 다양한 이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간통하는 사람”(Danker in Lings 2013, p. 499)이란 뜻으로 이해되지만 오래된 사전들에는 “남창”이란 뜻도 나옵니다(Berg in Lings 2013, p. 499). 번역 역사를 자세히 살필 때 분명해지는 것은, 이 단어가 처음에는 어떤 의미의 약함(아마도 믿음에서 헌신이나 담력의 약함)을 의미하는 것에서 나중에는 동성애라는 현대 개념과 연관되는 성적 범주로 개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의 의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1994 년 성명의 결론에 확실하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New Jerusalem Bible 에는 신약에서 쓰인 malakos 라는 단어에 대한 최선이고 아마도 가장 일관성 있는 번역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단어를 마태복음 11:8 에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옷)으로 번역하고 고린도전서 6:9 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으로 번역합니다.

로버트 가농은 malakos 를 “여성의 성적 역할을 하는 여성적인 남성들”로, arsenokoitai 는 “다른 남성들을 침대로 데려가는 남성들”로 읽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Gagnon 2001, p. 303-304) 이 경우 가농의 주장은, 로마 남성들에게 부자연스럽게 여겨졌던 성별 역할들을 여성 혐오적이고 가부장적인 생각에 바탕하여 거부했던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의 생각을 바울 역시 가지고 있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필로의 글을 잘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믿지만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바울은 소돔 이야기를 필로처럼 주로 동성 성교라는 죄에 대한 이야기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농의 주장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즉, 동성 관계 특히 성교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했거나 “여자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던 자유인 로마 남성 시민들을 나쁘게 보는 로마의 문화적 편견을 바울도 일정 정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캐나다장로교회 내에서 우리의 일관된 이해는 이런 문화적 편견 특히 남성과 여성 성별에 대한 여성혐오적 가정에 대해 비판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찰에도 불구하고, malakos 에 대한 보다 강력한 증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기독교 신앙의 용기가 결여된 행동과 관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malakos 라는 단어를 다루었는데 arsenokoitai(s)라는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6:9 과 디모데전서 1:10 에 다 나옵니다. 1994 년 성명은 이 단어가 “남자 동성애자들과 (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남자들”을 의미한다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6.8). 로버트 가농도 arsenokoitai 을 적극적인 동성 성 활동에 대한 거부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는 그런 주장의 근거를 레위기 18:22 에 대한 언급, 특히 그 구절의 구약 70 인역에 있는 그리스어 번역에 두고 있습니다. (2001, p. 315) 이 단어 번역은 번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 단어가 당시의 일반적인 그리스 문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어 단어가 성경밖에서 언급되는 유일한 경우는, 고린도전서 6:9 과 디모데전서 1:10 에 이 단어가 사용된다는 언급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남성 누워있는 사람들(male- liers)”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워있는 사람들”로 번역할 수 있는 부분은 “침대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분명히 남자들이 침대에서 하는 금지된 성적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13:13 에 있는 “누워있는 사람들”(koite)에 해당하는 단어는 주로 “상대를 가리지 않는 성행위” 정도로 번역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단어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Helminiak in Lings 2013, p. 503) 우리의 최선은, 바울과 디모데전서의 저자가 어떤 종류의 남성의 남용적 혹은 착취적 성 활동을 언급하는 것이라 추론하는 것입니다. (Helminiak 2000, p. 115; Hanks 2000, p. 108) 하렐(Harrell) 같은 학자는 디모데전서 1:10 에서 arsenokoitais 가 “간통하는 사람”과 “노예 무역상”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어떤 형태의 남용적인 성 행위를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Lings 2013, p. 504) 어쩌면 로마서 13:13 번역의 전통을 따라 우리도 이 단어가 성적으로 난잡하고 착취적인 남성들을 가리킨다고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틴데일과 킹 제임스 버전은 남성의 성적 남용(인류와 자신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번역의 지혜를 떠나서 arsenokoitai(s)를 소돔 사람들 혹은 동성애자로 번역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흔합니다. 이러한 것은 실제 텍스트가 아니라 번역자의 편견을 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Arsenokoitai(s)가 언약적 친밀 관계에 있는 남자 동성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확실하게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xxi}

5. 언약적 동성 단일혼 관계에 대한 우리의 결론이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행복을 가져옴니까, 아니면 해악을 가져옴니까?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지도록 부름받았습니다(갈라디아서 6:2).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다양성 문제에 직면했을 때, 초대 교회는 결혼에서 성적 정절과 우상숭배 관습을 금하는 것 외에는 서로에게 다른 규율을 지우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사도행전 15:28).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요약하신 사랑의 계명을 따르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실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마태복음 22:39; 마가복음 12:33; 누가복음 10:27; 요한복음 13:34; 로마서 13:9; 갈라디아서 5:14; 야고보서 2:8). 사랑과 정의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일한 정의의 부분들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캐나다장로교회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복음을 가르칠 때에 우리는 서로에 대한 우리의 가르침의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합니까? 우리의 가르침이 전달하는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태도를 반영합니까? 우리의 가르침이 온전함과 행복한 삶과 하나님과의 조화를 가져옵니까, 아니면 해악을 끼칩니까? 그러므로 장로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LGBTQI 자매들과 형제들에 대한 책임성 속에서, 우리의 현재의 가르침이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사회적 연구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들이 헤렉(G.M. Herek)이 편집한 책에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장에서, 마이어(L. H Meyer)와 딘(L. Dean)은 동성애 구성원들을 긍정하지 않는 종교 공동체들은 커다란 정신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몸, 마음 및 영혼(Body, Mind and Soul) 연구 가이드는 LGBTQI 청년들 가운데 십대 자살 위험이 높은 것에 대한 CAMH(Centre for addiction and Mental Health)의 연구 및 다른 연구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xxii}

캐나다장로교회 내에, 교회의 현재 가르침 때문에 자기들이 지고 있는 어두운 짐에 대해 말한 LGBTQI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LGBTQI 로 밝히는 교인들 중 자살하는 이들에 대한 목사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캐나다는 LGBTQI 인들에게 상당히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사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폭력적인 증오 범죄는 LGBTQI 인들에게 자행됩니다. 위의 성경 연구에서 밝혀진 바, 모든 친밀 동성 관계에 대한 완전한 거부와 전통적으로 연관되었던 텍스트들을 언약적 친밀 동성 관계에 단순하게 적용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을 고려하면, 교회의 현재 가르침과 태도를 재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면적 증언을 제공하는 성경은,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 강하고 영감을 주는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 사역, 죽음과 부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러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인간들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공동체를 이루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면적 증언을 제공하는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의 계명” 안에 살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죄 때문에 훼손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데 그를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으며 우리 삶에 두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면적 증언을 제공하는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성적 욕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성적이고 관계적인 존재로 부름받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한 성윤리는,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며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폭력적이고 억압적이며 사랑이 없는 성적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해를 입히는 것이 성적 부도덕임을 보여줍니다. 1994 년 성명이 이 점에서 현명한 지침을 주고 우리의 성경 연구도 그것을 시사하는 바, 존엄성, 정의, 평등이 LGBTQI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장기 동거를 하는 일부 경우에서 만약 그 커플이 그렇게 여긴다면 교회는 그런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여길 것입니다. 교회의 과업은 사랑, 헌신, 충절이라는 우리가 믿는 중심적 가치가 결혼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HS1994, 5.3.2)

성경에서 동성 성관계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극소수의 구절들은 언제나 강한 가부장적 편견, 배우자에 대한 부정,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해악, 성적 방종이라는 맥락 안에서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이성애 맥락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종류의 행동을 더욱 자주 그리고 강하게 반대합니다.

LGBTQI 자매 형제들의 해석상의 인도를 따라 또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성을 가지고 성경을 조심스럽게 읽은 후, 우리는 이제 22 년 전에 내려진 1994 년 성명의 결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간음, 강간, 근친상간, 혼음, 동성 관계를 하나님의 창조 패턴에 대한 성적 왜곡의 증거로 봅니다. (6.1.9)

“동성 관계”를 간음, 강간, 근친상간, 혼음과 같은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성애적 행동이나 동성애적 행동을 불문하고 간음, 강간, 근친상간, 혼음을 매우 분명히 거부한다는 것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의하면, 성경은 신실한 언약적 동성 관계를 분명하고 명백하게 금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성경을 신중하게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면,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는 LGBTQI 형제 자매를 정죄하는 것을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미주

참고문헌

- Bruggemann, W. *Genesis –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 Brownson, J.V. *Bible, Gender, Sexuality: Reframing the Church’s Debate on Same-Sex Relationships*. Grand Rapids: Eerdmans, 2013.
- Carden, M. *Sodomy: A History of a Christian Biblical Myth*. London: Equinox, 2004.
- Countryman, L.W. Jude. 2006 in Guest, D; Goss, R., West, M. & Bohache, T. (eds.) *The Queer Bible Commentary*. London: SCM, p. 747–752.
- Crompton, L. *Homosexuality and Civilization*.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 DeFranza, M. *Sex Difference in Christian Theology: Male, Female and Intersex in the Image of God*. Grand Rapids: Eerdmans, 2015.
- Dynes, W.R. “Philo Judaeus (CA. 20 BC–CA. 45 AD.)” in Dynes, W.R. (ed.) *Encyclopedia of Homosexuality Volume II*. New York: Garland Publishers Inc. 982, 1990.
- Fretheim, T.E. *God and World in the Old Testament: A Relational Theology of Cre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 Gagnon, R.A.J. *The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 Texts and Hermeneutic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1.
- Gonzalez, M. A. *Created in God’s Image: an Introduction to Feminist Theological Anthropology*.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2007.
- Helminiak, D.A. *What the Bible Really says about Homosexuality*. New Mexico: Alamo Square Press, 2000.
- Hill, D. *The gospel of Matthew: New Century Bible*. London: Oliphants, Marshall, Morgan and Scott, 1978.
- Johansson, W. “Law (Major Traditions in the West)” in Dynes, W.R. (ed.) *Encyclopedia of Homosexuality Vol. 1*.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682, 1990.
- Jordan, M. D. *The Invention of Sodomy in Christian The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 Keufler, M. *The Manly Eunuch: Masculinity, Gender Ambiguity, and Christian Ideology in Late Antiqu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 Lings, K.R. *Love Lost in Translation: Homosexuality and the Bible*. Trafford Publishing, 2013.
- Meyer, I.H & Dean, L. “Internalized Homophobia, Intimacy, and Sexual Behavior among Gay and Bisexual Men” in *Stigma and Sexual Orientation: Understanding Prejudice against Lesbians, Gay Men, and Bisexuals*. Herek, G.M.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Inc., 1998
- Milgrom, J. *Leviticus 17–22: Anchor Bible Commentary Volume 3A*. New York: Doubleday Books, 2000
- Monter, W. “Switzerland” in Licata, S.J & Petersen, R. P. (eds.) *Historical Perspectives on Homosexuality*. A special edition of the *Journal of Homosexuality* 6:1/2 also published, New York: Haworth Press, Inc. & Stein and Day Publishers. 41–56, 1980/81
- Nolland, J. *The Gospel of Matthew: Th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5.
- Runia, D.T. *Philo in Early Christian Literature: A Surve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Stewart, D.T. 2 “Leviticus”. in Guest, D; Goss, R., West, M. & Bohache, T. (eds.) *The Queer Bible Commentary*. London: SCM, 77–104, 2006.

i LGBT – 여성 동성애, 남성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성향. 본 연구에서는 여기서부터 LGBTQI 라고 언급할 것인데 이는 성별 정체성과 성적 성향을 보다 완전하게 표현하기 위해 성별 소수자(역주: Gender Queer, 성별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들)과 간성인(Intersex people)을 덧붙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의 명칭은 성적 성향과 성별 정체성 모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범주 중 어떤 것도 그 정의상 언약적 단일혼 친밀 관계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ii “성결법”은 레위기 17–26 장에 대한 성경 연구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름인데, 이 부분은 독특한 어휘들이 사용되고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부분의 위치와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iii 비록 바울이 직접 쓴 편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바울 서신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바울이라고 언급할 것입니다. 그런 서신들에는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학자들이 아직 논쟁을 하고 있는 서신들도 포함됩니다.

iv “사랑의 계명”은 모든 공관복음, 바울 서신, 야고보서에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조금 변형된 형태로 나옵니다. 이는 성경의 의미와 의도에 대한 이 요약이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의 이해에서 핵심적이었다는 증거입니다.

v 세리들, 사마리아인들, 문둥병자들, 저는 자들, 고자들, 다양한 이방인들, 그리고 도덕적 행동 면에서 의심스러운 사람들.

vi ISV(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와 같은 일부 번역은 그리스어 eunuchos 를 “성 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번역하는데, 그것은 한 마디로 오역입니다. 고자는 로마 제국에서 잘 알려진 사회적 육체적 범주였고, 불임과는 연관되었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과 반드시 연관되지는 않았습니다.

vii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존재론적 접근”, “윤리적 접근”, “관계적 접근”, “성례전적 접근”.

viii 본 연구 뒷부분(C 섹션)에서 3 세기의 “알렉산드리아 규칙”과 반성경적인 경향에 대해 논할 것인데, 거기서는 그리스-로마 사회의 상류 문화에 영향을 받아 거의 모든 형태의 성관계를 거절합니다.

ix 쿠플러는 그 법이 문자적으로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처럼 결혼을 할 때, 마치 한 여자가 자신을 남자들에게 제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성행위가 그 자리를 잃는 경우, 그 범행은 알 가치도 없는 경우, 비너스가 다른 형태로 변한 경우, 사랑을 찾으나 보이지 않는 경우”.

x 이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논의를 자세하고 면밀하게 살펴보려면 Lings, 2013, p. 625–629 를 참조하십시오.

xi “한 몸” 연합의 의미는 남녀 상보성이 본질적이라는 주장의 또 다른 차원입니다. 제임스 브라운슨은 여러 주장을 매우 자세히 논의하고, “한 몸”이라는 개념이 창세기 2:18–25, 마태복음 19 장, 에베소서 5:21–33, 고린도전서 6:12–20 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논의합니다. 이러한 텍스트들에서 성교가 대부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서 그런 성교가 꼭 규범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그는 지적합니다. (Brownson 2013, p. 105) “한 몸”에 대한 성경의 언급 중 그 어떤 것도 출산을 그 요소로 포함시키는 것이 없음을 지적하고, 성별 상보성은 보다 큰 친족 유대라는 문화적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결론 짓습니다. (Brownson 2013, p. 106)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남편이 그 아내에게 “붙좃는” 것처럼 룯이 나오미를 “붙좃을” 수 있습니다.

xii 정의와 동성 관계에 대한 저명한 개혁전통의 윤리학자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의 긴 논의를 보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youtube.com/watch?v=NkFE0sSF0fU](https://www.youtube.com/watch?v=NkFE0sSF0fU).

xiii 기독교 전통에서 소도미라는 관념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려면 Jordan (1997)를 참조하십시오.

xiv 18 세기 장로교의 네덜란드 공화국에서 일어난 끔찍한 박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크롬프톤의 책을 참조하십시오. (2003, p. 462–471)

xv 옥스포드 영어사전에서 “알다”라는 동사의 이 의미는 모두 17 개의 의미 중에 여덟 번째 나오고, 첫 번째 인용은 1382 년에 존 위클리프가 벌게이트를 번역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성적 관계를 언급한 것입니다.

xvi “이 경우 창세기의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의 내용을 밝혀줍니다. 여기서 분석되는 예에서, 창세기 18:21 과 19:5 에 나오는 yada’의 두 격려형은 8:26, 39:6, 39:8 에 나오는 이 동사의 칼(Qal) 형태가 취하는 조사(investigative) 역할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Lings 2013, p. 111)

xvii yada’의 보다 넓은 의미와 구약에서 그것이 사용된 용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Lings 2013, p. 82–119 를 참조하십시오.

xviii 개신교가 지배하던 제네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Monter 1980 및 Crompton 2003, p. 323ff 를 참조하십시오. 개혁주의 네덜란드 공화국에서 “소도미”라는 이름 하에 십대 소년들을 학대한 끔찍한 역사에 대해서는 Crompton 2003, p. 462 ff 를 참조하십시오.

xix Lings 2013, p. 523 을 참조하십시오.

xx HS1994, 6.8.

xxi 또한 브라운슨의 논의 2013, p. 273-275 를 참조하십시오.

xxii Body, Mind and Soul 문서의 p. 60 각주를 참조하십시오. presbyterian.ca/sexuality/body-mind-and-soul-study-guide-on-human-sexuality/